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8, Jeonju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Localization)

2018 11.8 (목)–11.9 (금)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최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목 차

■ 진행프로그램	6
■ 주요인사	8
■ 개최 취지문	16

CHAPTER 01 – 개막식

■ 개회사 : 오창환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20
■ 환영사 : 김승수 전주시장	22
■ 축 사 :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24
■ 축 사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5

CHAPTER 02 – 해외연사 인사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28
■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29
■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30
■ 제이 톰트 (Jay Tompt)	31

CHAPTER 03 – 기조연설

■ 지역화 : 불안정한 글로벌 정치환경에서의 진정한 발전전략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34
(Helena Norberg-Hodge)	

CHAPTER 04 – 주제강연

■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50
■ Palsystem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새로운 협력시도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60
■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제이 톰트 (Jay Tompt)	70

CHAPTER 05 –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지역경제 재활성화 및 공공의 참여 | 에다히로 준코(Edahiro Junko) 85
-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으로 시작된 마을 리더의 성장과정 | 김성국 86
- 지역순환경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 임경수 88

CHAPTER 06 –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지역식량 계획과 팔시스템의 역할 | 카토 카오리 (Kato Kaori) 95
- 「전주푸드2025」 플랜 추진전략 | 강성욱 98

CHAPTER 07 –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 워크숍 | 제이툼트(JayTompt) 103
- 지역에서 돌고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 | 이재환 106
- 은평화폐 평화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경제 | 박치득 116

CHAPTER 08 – 자유토론회..... 124

- 진행자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 토론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제이툼트(JayTompt),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김창환, 임경수, 황영모, 손현주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 진행 프로그램

11.8 (목)			
시간	프로그램		장소
09:00 ~ 09:30 (30')	등 록		한국전통 문화전당 2층 공연장
09:30 ~ 10:00 (30')	개 막 식		
10:00 ~ 10:40 (40')	기조연설	· 지역화 : 불안정한 글로벌 정치 환경 에서의 진정한 발전전략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10:40 ~ 11:55 (75')	주제강연	·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 생산자와 소비자간 새로운 협력 시도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 시민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제이 톰트 (Jay Tompt)	
11:55 ~ 12:05 (10')	특별강연	· 김승수 시장	
12:05 ~ 12:15 (10')	부실채권 소각	· 부실채권소각 행사	
12:15 ~ 12:25 (10')	기념촬영		
12:40 ~ 13:40 (60')	점 심		
14:00 ~ 17:00 (180')	제1세션 '지역의 미래'	발제 에다히로 준코(Edahiro Junko), 김성국, 임경수 좌장 허문경 패널 정수경, 고은설, 조선	한국전통 문화전당 2층 공연장
	제2세션 '로컬푸드'	발제 카토 카오리(Kato Kaori),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강성욱 좌장 황영모 패널 박수영, 김현곤, 조경호, 김양우, 장순철	한국전통 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제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발제 이재환, 박치득 좌장 손현주 패널 제이톰트 (Jay Tompt), 윤성일, 이재민, 고은하	한국전통 문화전당 4층 교육실

11.9 (금)			
09:30 ~ 10:30 (60')	워크숍결과발표		한국전통 문화전당 2층 공연장
10:30 ~ 11:10 (40')	자유토론회	· 진행자 : 박진도 지역재단이사장 · 토론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제이툼트(Jay Tompt), 노노야마리에코(Nonoyama Rieko), 김창환, 임경수, 황영모, 손현주	
11:10 ~ 11:40(30')	폐막식	폐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8, Jeonju

■ 주요인사



기조연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 (호주) Local Futures 대표
- 전 세계 로컬 운동 활동가로서의 선구자
- 국제생태문화협회(ISEC)의 발족(2014년부터 Local Futures로 불림)
- 1986년 바른생활상 수상(Right Livelihood Award)
- 저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 (1992년)
행복의 경제학 (2012) 로컬의 미래 (2018)



주제연설

에다히로 준코
(Eda Hiro Junko)

-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심리학 석사
- 유한회사 이즈 대표
- 환경NGO 재팬 포 서스테이너빌리티 대표
- 저서: 지역경제를 재창조하자-분석·진단·대책(2018년) 등 다수



주제연설

제이 톰트
(Jay Tompt)

-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 몬트레이 국제학 연구소 MBA, 산호세 주립대학교 철학 학사
- 왕립 예술협회 회원
- Totnes Reconomy Project 공동창립자이자 컨설턴트
- 지역경제 청사진 과정과 핸드북을 공동 개발
- 유럽과 일본 전역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경제 관련 강의 다수



주제연설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 (일본) Palsystem 도쿄 대표
- 일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 지역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Palsystem) 이사회 부회장



제2세션 워크숍발제
카토 카오리
(Kato Kaori)

- (일본) Palsystem 제품기획부 부장

■ 국내주요인사



김 승 수
전주시장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재임중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 문화, 생태에 주목하며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 번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구도심 마을 재생과 전주푸드플랜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 클럽의 공동대표 외에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2018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다른 지방도시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 병 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현재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 제8대 전반기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전주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 농촌지역 도시 기반 시설 확보,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발의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공동체문화 회복에도 힘쓰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 원 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로 나아가고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모든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며 참여하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이자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가 있다.



박 진 도
지역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뉴카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설립해,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탄 행복의 비밀’, ‘위기의 농협, 길을 찾다’ 등이 있다.

■ 국내주요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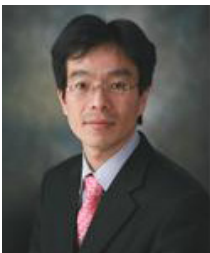
1세션 발제
김성국 대표

천사마을인 노송동을 사람이 떠나지 않는 마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결성한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 대표이다.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 소외계층 후원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세션 발제
임경수 센터장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다. 환경공학 박사로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이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상임이사,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논산시 공동체경제추진단장을 역임했다



2세션 좌장
황영모 박사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3세션 발제
이재환 주무관

민관협력기반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한 시흥시에서 2017년도까지 민관 네트워크인 '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2018년도부터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지역에서 돌고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의 확산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다.



3세션 발제
박치득 센터장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인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허브에서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큐베이팅, 성장기 사회적기업 입주 및 공동사업 추진, 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오 창 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 문 경
기획운영위원장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현장의 사례를 담론의 장(場)에 담아내고 다시 현장으로 환원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를 전주로 안내한 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고 은 하
위원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강 소 영
위원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발전소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 창 환
위원

공공작업소 심심, 사회적기업 이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 전통시장,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완주CB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배웠다.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김진옥
위원

제 11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고 도시기반 확충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문제 해결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보다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여 명품녹색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손현주
위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미래학회 편집이사로 활동중이다. 미국 하와이대학 정치학과에서 미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의 대안미래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연구하고 있다. 초연결성에 기반한 데이터사회에서 인간, 가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운동(New Economy Movement)’에 관심이 있으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강성욱
위원

2010년 완주군에서 계약직공무원 근무를 시작으로 지자체 단위의 공동체지원 농업(CSA),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지역푸드플랜 현장 실행 조직에서 일을 해왔다. 2015년부터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 프로젝트 「전주푸드2025」 플랜을 실천하고 있다.



이재민
위원

경제학박사이면서 응지세무대 학교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



장우연
위원

전주시 정책연구소 도시분야 연구원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다가 희망제작소라는 시민사회 민간 싱크탱크에서 시민참여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 연구와 활동을 하였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에 와서 지역을 배우며 미래유산, 젠트리피케이션 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3세션 지역화폐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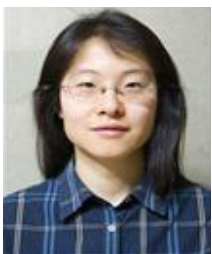
1세션 토론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의 대표이며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장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관련된 회사, 프로젝트, 연구, 세미나를 위한 공유공간인 Urban BASECAMP를 운영하고 있다.



1세션 토론
고은설

예술기획연구소 Art-Cluster 별의별 대표로서 도시의 다양한 시대와 공간을 발견하여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좋은 사람들과 연대하며 건축의 만만한 담론장<별의별건축가시리즈>, 유희공간의 재발견 <별의별하우스시리즈>,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 <꿈꾸는 아지트> 등을 기획/진행 중이다.



1세션 토론
조 선

지역과 지역민을 중심에 두고 풀뿌리, 공익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기자활동을 해왔다. 기자라는 관찰자를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일과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돕고, 지역을 재생하고 싶어 공동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에 대해 공부했다. 특히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들로 사회적경제와의 접점, 시민자산화, 메이커시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현장과의 연결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2세션 토론
조경호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도 헌신하였으며, 농업정책 연구에 관심을 갖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지역농업조직화와 내발적발전론에 의한 농촌산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2세션 토론
박수영

원주친환경농업연합회 총무이면서 (사)한알마을 상임이사로 활동중이고 원주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지역농업,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교육 등에 관심이 많고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이다.

■ 워크숍 참여자



2세션 토론
김현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조직국장,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정책실장,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추진단 사무국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조직교육국장, 경기도 학교급식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시농민회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농민운동과 학교급식 운동, 협동조합운동을 바탕으로 민관협치 조직인 농어업회의소의 경험을 거쳐 정당운동과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 농촌 먹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세션 토론
김양우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 회장으로 전)사단법인 농업기술자협회 전북지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20살 청년시절부터 오랜 세월 농사만 짓고 살아왔으며, 현재 전주시 색장동에서 전주푸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2세션 토론
장순철

지역 먹거리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전주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썹(HACCP)인증 육가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애플농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주급식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3세션 토론
윤성일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경제가 가능합니다”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이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의 힘을 모아 서로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마포 내 190여곳에서 사용하는 공동체화폐를 민간 스스로 발행하여 사용 중이며, 공동체은행을 통한 잉여자금 운동,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일자리 만들기 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시장경제를 넘어 협동을 통한 대안경제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활동사항은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울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입니다.



1세션 퍼실리테이터
최현우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한 팔복 새뜰마을사업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본인 삶의 터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주제로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나아가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 번 각인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1세션 퍼실리테이터
문요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다양한 주민참여방식을 고민하며 참여형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해 오다 2010년부터 퍼실리테이터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민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을 바꾸는 유일한 방식은 참여에 있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 낼까 고민하고 있다.

개최 취지문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취지문

전주시는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로컬퓨처스 Local Futures 및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전주시에서는 4번째이자 로컬퓨처스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19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입니다.

2018년에는 지금까지 제시된 비전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현장에 적용하고자 회의의 부제를 ‘지역화를 위한 전략’으로 정하고,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카토 카오리 Kato Kaori, 제이 톰트 Jay Tompt 등 해외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강연회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강연회에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는 40여 년 간 세계 각지에서 지역화 논의를 선도해온 경험을 기조강연을 통해 공유합니다. 에다히로 준코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는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국지적 경제순환효과의 향상 방안을 주장합니다. 노노야마 리에코 팔시스템소비자협동조합 이사회 부회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제이 톰트 토트네스 재생경제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친환경도시인 트랜지션타운 토트네스의 사례를 사회적자본과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 ‘지역의 미래: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로컬푸드’,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해외연사와 국내연사,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함께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선진사례를 만들고 실천으로 이끌기 위한 긴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상의 프로그램은 첫날에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각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을 통하여 ‘지역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1 개막식 OPENING SESSION

-
- (개회사) 오창환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 (축사)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 (축사)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개 회 사



오 창 환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위원장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진행할 오늘 내일 이틀 간 발표와 토의는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경제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지난 1, 2, 3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외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열리는 “2018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전 세계에 전파할 만한 좀 더 구체적인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클로버는 행복의 상징이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클로버를 마구 밟고 다닙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 행복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행복을 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운동하지 않게 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구입하기 위해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과 행복이 파괴되어가며 심각한 환경파괴를 유발되며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파괴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감으로서 전 세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개발 국가는 기아와 경제 파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극의 꿈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위협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곧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화를 위한 전략’을 부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헬레나 호지 대표, 에다히로 준코 대표, 노노야마 리에코 부회장, 제이 톰트 토트네스 코디네이터를 모시고 전 세계의 지역화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지역경제시스템의 재구조화 방향, 생산자와 소비자간 성공적인 협의체 사례 그리고 친환경도시내 사회적 자본 사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합니다. 또한 3차 년도에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에 필수적인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Local Food’ 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들 분야에서 전주에 적용시킬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외에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행복의 경제학이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주 시장님, 지방정부 협의회장님과 전주시 의회 그리고 로커 퓨처스 사무국 관련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9개월간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도와주신 여러 단체에도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대한민국은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워하며,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근면성실함으로 이룬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과거보다 풍족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발전과 양적 성장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물질적 풍요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실업과 노후 불안,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현대인들을 옥죄어 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인 이윤 추구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나눔과 협동,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체 안에서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향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 등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 사회적경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진정한 행복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개인의 행복을 좇기보다는 우리사회의 행복 총량을 늘리기 위한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모두가 행복한 더욱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전주에서 개최되는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지역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부제와 함께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사회적경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으로서,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전주를 방문해주신 에다히로 준코 일본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님, 노노야마 리에코(Nonoyama Rieko) Palsystem 대표님, 제이토크트(Jay Tompt) 영국 플리머스대학 교수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Local Futures 대표님, 그리고 국내 전문가 패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박 병 술

전주시의회 의장

깊어가는 가을 속에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곳 전주에서,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행사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멀리에서 와주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사람과 생태, 문화 등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년 거듭되는 국제회의 개최로 명실상부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물질 만능주의의 팽창으로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풍요속의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많은 이들이 더 큰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몰락과 전통적 가정구조의 해체 등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가 희미해지면서 고독사나묻지마 범죄 등 각종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공유의 경제학의 연구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 시대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한 꼭 필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의 비전을 발굴하여 그 미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행복한 경제학을 널리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 원 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제4회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정원오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계신 국내외 전문가와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저희 협의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매일 느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람중심의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양극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소통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승수 전주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력이 한국 사회적 경제 발전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지도록 저의 협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2

해외연사 인사말

-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 제이 톰트 (Jay Tompt)
 -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인사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Helena Norberg-
Hodge

저는 다시 한 번 금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저희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비전이 한국에서 높이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현재의 세계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직인 Local Futures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경제 운동 형태의 근본적인 재검토" 소식을 매일 전달 받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들과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리더들은 경제적 변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 환경 및 사회 활동가들이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여기에는 로컬 푸드, 분권화된 에너지, 비즈니스 제휴 및 지역 재정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걸친 이러한 고무적인 프로젝트들에 대

한 정보는 우리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Planet Local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글로벌 운동에 전주시가 역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식량과 농업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의 단체들과 매우 현명하게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친애하는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에다히로 준코(Junko Edahiro)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우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세계와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 컨퍼런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지역 경제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의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미래의 우리 경제와 사회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토론하고, 배우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이번 전주시에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희 Palsystem(팔 시스템) 소비자 협동조합을 초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alsystem은 한국의 선진 협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으며, 같은 소비자 협동 조합으로서, 사회적 연대 경제에 대해 배워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덕분에, 유통 및 소매 분야에서 일본 SDG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배우고, 또한 일본 현지에서의 장래 활동에 대해 계속 홍보하고 싶습니다. 꼭 함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전주시민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방문과 여러분의 생활, 문화, 도전 및 해결책에 대해 배우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 년 동안의 전환과 영속 농업(permaculture), 연대 경제와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해 온 경험을 공유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톰트

JayTompt

저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불공정(injustice),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부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저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대안을 만들며, 야심찬 협력을 위해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배우고,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컨퍼런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 드리며, 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글로벌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노력만이 신속하고,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추구하고 있는 운동은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생태학적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재생 가능하고, 탄력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3

기조연설

-
- 지역화: 불안정한 글로벌 정치환경에서의 진정한 발전전략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지역화: 불안정한 글로벌 정치환경에서의 진정한 발전전략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전 세계의 평화, 평등 및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전 세계적인 보수 정치의 움직임은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포퓰리즘이 어떻게 분열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했습니까? 산업화 및 토지 기반의 문화에서 활동한 본인의 40 년의 경험에서 볼 때, 세계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세계화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체제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지속적인 기업 규제 완화로 인해 주도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정치와 경제분야를 초월하여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고용 안정은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을 받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이 글로벌 소비자 단일 문화로 대체됨에 따라 정체성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 세기 이상의 경험을 통해, 광고주들이 체득했듯이, 불안한 사람들은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단지 방취제와 치아 광택제 광고에 노출되는 것 이상의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곤경을 "다른" 문화 탓으로 돌리는 선전 활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치 또는 전통적인 '좌파 대 우파' 정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인 경제적 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은행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로 이러한 힘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을 바꾸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업 규제 철폐가 민주주의의 붕괴, 근본주의 및 폭력의 증가, 그리고 극우 정치 지도자들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석에서 (전체적 흐름에서 무시되는) 보다 광범위한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화와 불안정

많은 사람들, 특히 진보 진영에서 세계화를 국제 협력, 해외 여행 및 인도주의적 가치의 확산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핵심은 경제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2 차 대전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기업 아젠다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는 이것을 '발전'; 선

진국(Global North)에서는 '진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근본적인 과정은 '비즈니스, 금융 및 정치의 규제 완화, 중앙 집중화 및 사유화'로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과정은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노동력, 느슨한 보건 및 환경 기준, 대규모 세금 감면 및 관대한 보조금을 찾아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수 있고, 따라서 일자리도 같이 이동합니다. 심지어, 이들 협정은 자신들의 잠재적 이익을 위협하는 법규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조롱입니다. 끊임없이 글로벌 "성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갇혀있는 지역 사회는 지역 경제가 훼손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한 기업 주도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기업의 힘은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으며, '규모의 효율성'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성장이 평화와 번영의 통로라는 신념으로, 글로벌화를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세계 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수십 년간의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은행들은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세금 감면 및 직접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기업 시스템은 세계화에 수반하여 구축되는 인프라라는 다양한 간접 보조금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마케터들은 항만, 철도, 공항 및 고속도로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소비하는 (운송을 위한)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첨단 위성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로 자본을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을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은, 현지화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된 기업들에 유리하며, 그 비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ⁱ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에 의해 '스스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기업조차도 정부의 관대한 지원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Mariana Mazzucato가 주장한 것처럼, iPhone의 경우, Steve Jobs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미국 국방부와 국가과학재단의 공적 연구기금 덕분이었습니다.ⁱⁱ Elon Musk의 미래 사업의 경우, 지역, 주 및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미화 50 억 달러의 혜택을 보았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의 로켓 기술 연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ⁱⁱⁱ

일자리 불안정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 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하에서 미국은 제조업체들이 임금이 저렴하고, 근로기준이 느슨한 멕

시코로 이전함에 따라, 약 70 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iv} 하지만,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전부가 계속 멕시코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00 년 10 월에서 2003 년 12 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된 제품이 더 저렴해져서, 멕시코는 30 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v 전체적으로, 멕시코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누린 미국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자국 시장에 침투하여, 약 230 만 명의 소규모 농민들의 생계를 악화시켰습니다.^{vi} 이 농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멕시코의 도시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대책이 거의 없어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의 희생자들인 이들이 종종 미국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지만, 제조업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의 이익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가격 중 2 % 미만이 생산에 참여한 중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58 %는 애플이 이익으로 가져갑니다.^{vii}

생활 수준을 정체 (또는 하락)시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 더 긴 근무시간 및 더 적은 수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역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있는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역외 이전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집중화되고,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일자리는 비례하여 없어집니다.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는 글로벌 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쟁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지역경제에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새로운 슈퍼마켓 하나가 생기면, 276 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viii} 지역 자립 연구소(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업체인 아마존이 만든 일자리보다 15 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졌다고 합니다.^{iv}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Amazon**은 공공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및 운송 인프라 혜택을 누릴뿐 아니라,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판매세를 면제 받아서, 가격 경쟁력에서 일반 업체들보다 9.75%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x

동시에, 첨단 기술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제조 분야에서 로봇이 숙련공을 대체하지만, 농업에서 기술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수출 주도 시장은 표준화된 상품을 요구합니다; 표준화된 식품 생산은 기계 및 화학 물질에 대부분 의존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합니다. 그 결과, 농업 부문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EU에서는 지난 10 년 동안 10 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보유한 약 4 백만 개의 농장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3% 미만의 농장이 EU 농지 전체의 50 %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xi} 미국 인구조사국의 경우, 인구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여, 농업 인구를 더 이상 집계하지 않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농업 인구

가 더 적은 것으로 추산됩니다.^{xii} 정보 기술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다른 분야의 일자리 역시 사람에서 컴퓨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임금 수작업 및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 진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xiii}

정치적 불안정

은행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부와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정부보다 더 힘이 커졌습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정부를 소송하고, 공익적인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유 무역 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 등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부에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전례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xiv}

'자유 무역'은 대기업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지만, 소규모 국내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의미합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활동을 부당한 기준과 복잡한 관료주의에 묶어 두기 위해, 정부에 로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소규모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밀집사육하는 닭 농가의 경우, 분명히 환경 및 보건 규정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밀집 사육된 동물들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대량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가공된 가금류의 장거리 운송은 부패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십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소규모 생산자 역시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종종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생산자는 규정 준수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생산자보다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기업 규제 완화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대규모 사업 유치를 위해 지불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었고, 세금 감면, 역외 아웃소싱 및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숨길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능력으로 인해 세수가 잠식되었습니다. 금융 규제 철폐로 인해 정부는 글로벌 은행과 기업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모든 외부 효과, 즉 글로벌 성장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인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기관들로부터 점차 소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정치 체제에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은행과 기업들에 의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발판을 확보 할 수 있는 틀에 박힌 권위주의적 후보자의 허위 주장과 공허한

심리적 불안정

지역 경제, 심지어 국가 경제가 훼손되면서 공동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호 의존성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분열과 고립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주변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없애 버립니다.

동시에,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소비자 문화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 제품을 사면 당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대인 관계가 소멸되고, 실제 역할 모델이 매스 미디어에서의 완벽한 가공 이미지 및 소셜 미디어의 과장된 세계로 대체되면서, 불건전한 비교만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식욕 부진, 불안, 공격성, 심지어 자살과 같은 질환의 증가율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격리, 가정 스트레스 및 경제적 압박의 증가로 우울증과 중독이라는 전염병을 초래합니다.^{xv}

신 경제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편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역 사회와 문화의 붕괴는 긴밀한 세대 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면서, 소속감이 절박한 불건전한 대안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근본주의와 극단주의가 급진적인 해결책 및 사회적, 개인적인 악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 즉 개인의 정당성과 의미,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하고, 가시적인 추세인 지역 기반 인구의 소멸 현상은 세계 곳곳의 인종 갈등, 근본주의 및 급진주의 출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농촌 지역 역시 세계화 세력에 의해 유사하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경제와 연결된 소규모 가족 농장의 경우, 원료 및 농기계 판매 기업이 부과하는 높은 생산 원가와 농산물의 가격 하락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출 주도 농업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서, 꾸준히 사라지면서 한때 이들에 의해 유지되었던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약화시켰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언론 및 광고를 통해 도시 생활이 '멋지다', 매력적이고 흥미 진진하다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들 지역은 극우 권위주의 운동의 비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현지화의 전망

규제 완화 자체 및 지역 사회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구속받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브렉시트, 두테르테 등의

가짜 해법이 힘을 얻는 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정치 세력들은 종종 "반세계주의자"라는 브랜드 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글로벌 독점 기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xxi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규제 완화의 병폐를 알리고 진단해야 할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현지화가 가장 전략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화는 경제 정책에서 180도 전환을 의미하므로,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현지화되고,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의 전환으로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소규모 기업들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강하고, 다양하며, 자립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며,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이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실물 경제를 복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단순히 같은 정치 구조에서 새로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체계적인 현지화 구축이 가능한 정치적 힘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의 다양하고 통합된 운동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지역 기반 (place-based)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와 평화, 실업, 환경 문제 및 정신적,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람들과 정치를 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일 이슈 캠페인과 좌우 대립을 해소하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대면(face to face)하는 지역 단체를 결성 후,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할 경우, 이것이 조직적인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강한 반 기업 정서를 표출하는 비판적인 대중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운동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욕구가 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난 번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 공약은 민간 기업이 인수한 핵심 섹터들을 국유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2016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기업에 의한 경제 통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에 응답한 정치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잡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적 주체이지만, 동시에 분산된 경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경제는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법규에 의해 환경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원래 라틴 아메리카 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La Via Campesina**의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선출직 공직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지만, 식량 주권 및 기업 규제 반대 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4 억 명이 넘는 소규모 농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는 복합적인 해법(solution-multiplier) 입니다. 정치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대표들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현지에서 돈이 유통되게 하여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문화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욕구보다는 실제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단축하여, 오염과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화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경제에서는 식량 생산이 독성 화학물질에 의존하는지, 농장 근로자가 학대를 받는지, 토지가 오염되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비즈니스를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게 합니다.xxii

현지화는 수출을 위한 특화 생산 대신 지역 수요를 위한 다각화된 생산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글로벌 독점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소규모 생산자, 농민 및 기업에 들에게 재분배를 합니다. 이로써, 정치 권력이 분권화되고,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커뮤니티 가든, 농민 시장, 지역사회 지원 농업 계획 및 도시 농업 등 식량 기반에서부터 지역 비즈니스 제휴, 분권화된 재생 에너지 계획, 공구 대여 도서관 및 지역 사회 기반 교육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이니셔티브의 기하 급수적인 성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으로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몇 가지 이니셔티브의 간략한 예입니다

- 호주 피츠로이 (Fitzroy)에서는 사람들이 매달 지역 공원에서 만나서, 농산물, 씨앗, 달걀, 잼, 양념(chutney), 꽃, 조리법 및 원예 관련 팁을 교환합니다. 돈은 필요 없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자칭 도시 수확물(Urban Harvest) 제도는 주민들이 식량 관련 돈을 절약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웃을 알게되고 지역 사회와 연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xxiii

- 미국 버몬트 (Vermont) 주의 경우, 파인 아일랜드 커뮤니티 팜 (Pine Island Community Farm)을 통해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계 난민들이 자신들의 농업과 요리 전통을 계속 보존하게 합니다.농장은 이들 이민자들에게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관련있는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뿐 아

나라, 서로에게, 그리고 지역 사회와도 연계를 갖도록 합니다.xix

- 영국 옥스퍼드셔(Oxfordshire)의 Low Carbon Hub는 지역 자체의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붕과 방치된 땅을 (지역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지분(community share offers)의 판매를 통해서 충당됩니다.xx

- 많은 불행과 근심의 원천인 금융 시스템마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현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포르탈레자(Fortaleza)의 빈민가의 경우, 지역 공동체 은행인 라스 팔마스(Las Palmas)가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행은 지역 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 통화를 발행합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 지역 내 구매의 20%만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xxi

이상은 수천 개의 창의적 풀뿌리 이니셔티브 중 일부에 불과하며, 현지화의 실행 가능성과 체계적인 혜택 양쪽 모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지화는 때로는 고립주의와 우파 민족주의와 혼동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현지화는 거대 기업의 힘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과 다름에 대한 관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레스턴(Preston)이라는 도시는 현지화가 어떻게 협업을 확대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2011 년, 시와 카운티는 정부 지원금 삭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지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주택 협회 및 대학 등 6 개 지역 기관의 지출을 변경함으로써, 2 년만에 지역 공급업체에 지출한 금액을 14 %에서 28 %로 증대시켰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협동조합 수가 증가했습니다. xxii 고립주의와는 달리, 프레스턴(Preston) 시는 (자신들이 다른 지역경제에도 유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럽 전역의 조달 네트워크 (Procure Network)의 구성원으로 다른 도시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역시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미 전역의 수백 명의 지역 비즈니스 리더들을 모아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BALLE** (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가 포함됩니다. 또한, **New Economy Coalition**은 현지화 전략의 교류를 위해 북미 전역의 NGO, 기업 및 사회 활동가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Transition Town** 네트워크는 화석 연료 경제에서 가능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룹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직인 **Local Futures**는 이러한 교류를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현재 50 개국 이상의 조직과 개인 회원을 포함하는 **IAL** (International Alliance for Localization)을 설립했습니다. 진정한 현지화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모든 수준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현지화 어젠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주의 및 자연주의는 '엘리트 주의'이며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입니다. 펀딩에 유리한 싱크 탱크가 이 메시지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유기농 식품, 천연 건축 자재 및 섬유, 대체 의학 등 건전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출 지향적 기업들의 생산을 위한 외부 효과와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지원을 없앨 경우, 세계화 제품의 원가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엘리트주의' 주장은, 경제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진국 시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년간의 수출 지향적 '개발' (식민지 주의와 노예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들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세계 무역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발 도상국 근로자들이 이러한 부의 대부분이 이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되며,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현지화는 선진국 및 개발 도상국 국민 모두가 경제적 활동을 다양화하고, 자립성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진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빈곤층은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수출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은 보이콧이 아니며, 대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풀뿌리 협력을 포함하는 신중한 경제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글로벌 위기를 감안하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대형 은행 및 기업의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 소매업체와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식량은 모든 사람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식량 경제 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재건되며, 환경 복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본 욕구를 원거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하게 현지화된 생산 시스템이 지역 사회의 격변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홍보 부서는이 메시지에 맞서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 식량 시스템의 비용이 얼마이든간에, 늘어나는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 및 에너지 집약적 단일 재배 방식, 유전 공학 및 글로벌 무역을 배가해야 합니다. xxiii 하지만, 전 세계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는 대규모 단일 재배 방식보다 소규모 농장이 토지, 물 및 에너지 단위당 생산성이 더욱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xiv 기업적 농업은 노동 단위당 생산량을 측정할 경우에만 효율적입니다. 수백만의 농업 일자리를 희생하여 소수가 혜택을 볼 경우, 단일 재배 방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구상 경작지, 담수 및 에너지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의 산업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된 선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이 5 에이커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소량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xxv 이러한 소규모 지주들을 단일 재배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그들을 빈민가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백만 명 중 상당 부분이 좌절하고, 분노하며, 극단주의적 경향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식량 체계는 (특히, 중북 무역을 감안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우유, 빵, 돼지고기를 거의 100,000 톤 이상 수출하면서, 동일한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백만 톤의 쇠고기와 수십만 톤의 감자, 설탕, 커피를 수출하고, 동시에 수입합니다. xxvi 어떤 경우에는, 수출 제품과 수입 제품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새우가 중국으로 배송되어, 껍질을 벗긴 후, 스코틀랜드로 보내져서, 빵가루에 묻혀서, 포장되어 판매됩니다. xxvii 이것이 기업적 농업의 핵심이지만,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식량 시스템은 현재 세계 인구를 지속 가능하게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지구 상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정도로 식량이 충분히 생산되지만, 기업들이 엄격하게 통제하여, 약 8 억 7 천만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xxviii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긴 공급 체인과 흠이 난 농산물을 기업들이 폐기하여,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재배하는 식량의 40 % 이상이 폐기됩니다. xxix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식량은 전 세계의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필요한 양의 4 배입니다. xxx

지역 식량 공급에 대한 지원 정책의 경우,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비롯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농장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사회 기반의 생태 경제 시스템이 주류가 됨으로써, 전 세계의 저소득 임금 근로자들도 지역 경제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공해 산업에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자원 집약적 경제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들이 내재화되어, 시장 가격이 실제 자원 및 공해 비용과 비슷해질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결론

권위주의의 부상은 경제의 세계화와 관련된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약화시키며, 개인 및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켜서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사막화, 홍수 등 세계화의 비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더 큰 난민 물결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인류애적으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경제 활동의 규모 축소 및 분권화를 즉시 시작하고, 국가가 경제를 다시 통제하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가 (상호 교류 포함)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현지화를 위한 운동은 인식의 확산, 역동적인 정치 운동, 계몽된 풀뿌리 행동 및 국제 협력 등 전략적 변화의 많은 측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크기에 비해서 부적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지화의 깃발은 전통적인 정치 스펙트럼의 양측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수백 가지의 단일 이슈 캠페인을 연계시키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현지화는 "상호 비난"과 혼란과 공포로 야기된 적대적인 분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위기의 공통적인 근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경제적 현지화는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참고 자료

- i. Gorelick, Steven, 작은것은아름답고, 큰 것은 보조금을 받는다. ISEC, 1996, Chapter 3, "인프라 및 스케일".
- ii. Mazzucato, Mariana, 기업가 주 :정체가 드러난 공공 대 민간 부문 신화, 2013
- iii. Aronhoof, Kate, "Elon Musk 국적화 사례", 이 시대, 2018 년 2 월 2 일
- iv. Faux, J. (2013) 'NAFTA의 미국 노동자에 대한 영향, 경제 정책 연구소, 2013 년 12 월 9 일
(<http://www.epi.org/blog/naftas-impact-workers/>)
- v. Fabens, Isabella, "멕시코의 최신 투자: Maquiladora 노동자의 처지", 반구 문제 협의회, 2013 년 8 월 14 일,
<http://www.coha.org/chinas-latest-investments-in-mexico-the-plight-of-maquiladora-workers/viFaux, J.op cit.>
- vii. Hart-Landsberg, M. (2017) '미국 기업은 글로벌 지배력을 계속 유지한다', 4 월 21 일 Economic Front 보고서
<https://economicfront.wordpress.com/2017/04/21/us-corporations-continue-their-global-dominance/>.
- viii. 지구의 친구 영국, '슈퍼마켓 기획 신청서와 맞서는 방법', 지구의 친구 영국, 2005 년 9 월
(https://www.foe.co.uk/sites/default/files/downloads/campaigning_against_supermarkets.pdf)
- ix. Laveccia, Olivia 및 Stacy Mitchell, "Amazon의 Stranglehold : 회사의 단단한 그림이 경쟁, 진압 고용 및 사회 위협에 미치는 영향", 지역 자립 연구소, 2016 년 11 월. (https://ilsr.org/wp-content/uploads/2016/11/ILSR_AmazonReport_final.pdf)
- x. 세무 연구소 (Sales Tax Institute), "주 판매 세율", 2017 년 7 월 1 일. (<http://www.salestaxinstitute.com/resources/rates>)
- xi. TNI, "소수를 위한 땅: 유럽의 토지 집중 상태", <https://www.tni.org/en/publication/land-for-the-few-infographics>
- xii. Vidal, John. "एको 사운딩", The Guardian (런던과 맨체스터), 2000 년 9 월 6 일, "Society" 섹션, p. 8
- xiii. <https://www.technologyreview.com/s/515926/how-technology-is-destroying-jobs/xiv> 지구 유럽의 친구들, '반 민주주의 빙산의 TTIP', 2013 년 10 월 지구 유럽 친구 보고서 (http://www.foeeurope.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oee_factsheet_isds_oct13.pdf) ; 기업의 유럽 전망대 / 캐나다 협의회 / 초국가적 연구소 (2013) No라고 말 할 권리.
유럽 연합 (EU) - 캐나다 무역 협정은 파쇄 금지를 위협하고있다
(<http://corporateeurope.org/publications/right-say-no-eu-canada-trade-agreement-dreatens-fracking-bans>).
- xv. Monbiot, G. (2014) '이 시대 외로움이 우리를 죽이고있다', The Guardian, 10 월 15 일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oct/14/age-of-loneliness-killing-us>) ; Alexander, B. (2010)
중독의 세계화: 영혼의 빈곤에 관한 연구, 영국 옥스포드 : Oxford University Press; 불경기와 세계화: 21 세기의 정신 건강 정치
(<https://www.springer.com/us/book/9780387727127>).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전략

- xvi. **Hart-Landsberg, M.** (2016)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직면하기', 12 월 16 일 the Economic Front 보고서
(<https://economicfront.wordpress.com/2016/12/16/confronting-capitalist-globalization/>;))
- xvii. **D orninger, C., Abson, D.J., Fischer, J., 및 von Wehrden, H.** (2017),
지역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생물 물리학적 인간-자연 간 연계성 평가. 4 월 24 일 환경 연구 서신 12.
- xviii. 로컬의 미래, 플래닛 로컬: "식품 스와핑과 Fitzroy 도시의 수확"
(<http://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food-farming-fisheries/australia-food-swapping>) -fitzroy-urban-harvest /)
1. Local Futures, Planet Local: "Refugees Put Down Roots through Community Farming,"
(<https://medium.com/planet-local/refugees-put-down-roots-through-community-farming-8396934e2fe9>)
1. Local Futures, Planet Local: "Low Carbon Hub,"
(<http://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local-energy/uk-low-carbon-hub/>)
1. Local Futures, Planet Local: "Banco Palmas,"
(<http://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local-business-finance/brazil-banco-palmas/>)
- xiv 로컬의 미래, 플래닛 로컬: "난민은 공동체 농업을 통해 뿌리 내린다."
(<https://medium.com/planet-local/refugees-put-down-roots-through-community-farming-8396934e2fe9>)
- xx. 로컬의 미래, 플래닛 로컬: "저탄소 허브,"
(<http://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local-energy/uk-low-carbon-hub/>)
- xxi. 로컬의 미래, 플래닛 로컬: "Banco Palmas,"
<http://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local-business-finance/brazil-banco-palmas/>)
- 1 see for example: Oosthuizen, E., "Collaboration is Helping to Feed the World" , Monsanto, May 10, 2017.
<https://monsanto.com/company/commitments/food-security/articles/collaboration-helping-feed-world/>
- xxii. <https://thenextsystem.org/the-preston-model>
- xxiii. 다음의 예를 참조: Oosthuizen, E., "협력은 세계를 먹여살린다." Monsanto, 2017 년 5 월 10 일
<https://monsanto.com/company/commitments/food-security/articles/collaboration-helping-feed-world/>
- xxiv. 곡물 (2014 년) "토지에 대한 배고픔: 전 세계 모든 땅의 4분의 1도 안 가지고 있는 소농들이 세계를 먹여살린다"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4929-hungry-for-land-small-farmers-feed-the-world-with-less-than-a-quarter-of-all-farmland>.
- xxv. FAO 추정, " 가족 농업 지식 플랫폼 ", 2015 년 12 월 16 일
<http://www.fao.org/family-farming/background/en/>.
- xxvi **FAOSTAT**, 식량 농업기구, <http://faostat3.fao.org/home/index.html>. 참고 자료 : **Ten Veen, R.** (2011) '세계 식량 교환', 북부 녹화, Wuppertal Institute; Lucas, C. (2001) ' 대 식량 스왑 중지 : 유럽의 식량 공급 재 지역화', 녹색 / 유럽 자유 동맹 / 유럽 의회; **Norberg- Hodge, H., Merrifield, T., and Gorelick, S.** (2002) 식량 경제 가정에 들어

오기, London, Zed Books, p. 18..

자유 동맹 / 유럽 의회; Norberg- Hodge, H., Merrifield, T., and Gorelick, S. (2002) 식량 경제 가정에 들어 오기, London, Zed Books, p. 18..

xxvii. Ungoed-Thomas, J. and Meyer, M.R. (2007) '영국 새우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중국으로 간다',

Sunday Times, May 20, [http : // www. timesonline.co.uk/tol/news/uk/article1813836.ece](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article1813836.ece).

참조 : 스코틀랜드 편집자 (2006 년) "중국 왕복 여행에 보내진 스코틀랜드 **scampi**로 잃어버린 일자리", 스코틀랜드 사람, 9 월 25 일,

<http://www.scotsman.com/news/ scotland / top-stories / jobs-lost- as-sco ish-scampi-on-round-trip-to-china-1-1141935>

xxviii. FAO (2012) '전 세계 거의 8억 7천만 만명의 인구가 만성적 영양 실조 - 신 기아 보고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

10 월 9 일, [h p : //www.fao.org/news/story/en/item/161819/icode](http://www.fao.org/news/story/en/item/161819/icode)

1 Dana Gunders, Wasted: How America Is Losing Up to 40% of Its Food from Farm to Fork to Landfill (Washington, 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12), <http://www.nrdc.org/food/files/wasted-food-IP.pdf>.

1 "Global food waste: the numbers behind the problem" , <https://insinkerator.co.uk/uk/page/global-food-waste-stats>

xxiv. Dana Gunders, Wasted : 미국이 농장에서 포크에서 매립으로 식량을 최대 40 %까지 잃는 방법

(워싱턴 DC : 천연 자원 보호 협회, 2012),

: [http : //www.nrdc.org/food/files/wasted-food-IP.pdf](http://www.nrdc.org/food/files/wasted-food-IP.pdf).

xxx. "세계적 식량 낭비: 그 문제 뒤의 수", <https://insinkerator.co.uk/uk/page/global-food-waste-stats>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4

주제강연

-
-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 Palsystem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새로운 협력시도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제이 톰트 (Jay Tompt)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지역경제의 중요성

지역경제 회복력은 모든 지역 도시, 소도시 및 마을의 핵심입니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역 도시가 지나치게 외부 지역과 국가에 식량, 에너지, 직업 및 수입에 대해 의존하고 있으면, 외부적 충격과 지정학적인 경우에 대해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경제를 더욱 독립적이고 회복력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제 발표 주제입니다.

새는 양동이 모델 Leaky Bucket Model

영국의 신경제재단은 “새는 양동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역경제를 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중앙/지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기업들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지역에 유치하고 방문객을 불러들여 그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음식이나 기념품 등을 사면서 소비를 하도록 해 외부로부터 돈을 양동이에 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동이”에 담은 돈의 대부분은 여러분 지역경제에서 꽤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을 짓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지역경제에 커다란 성공이죠! 그러나 그 공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외부 지역에서 온다면, 박물관 공사에 집행되는 돈은 여러분 “양동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에 공장 하나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합시다. 큰 성과죠! 그러나 조립을 위한 부품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그리고 법적인 유지보수 작업의 대부분이 외부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양동이에 담은 돈은 다시 즉시 나가게 됩니다. 방문객들의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 회복력의 핵심은 여러분 지역경제의 “구멍”을 찾고 가능한 큰 구멍을 찾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을 여러분 지역경제에 계속해서 순환시켜 지역 사업 및 주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국지적 승수효과

돈의 “흘러나감”과 “내부적 순환”의 차이점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A도시가 외부로부터 10,000엔을 얻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A도시의 사업주나 주민들은 지역경제 내에서 그 돈을 순환하거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전략

나 아마존 및 다른 인터넷상점으로부터 주문해서 구매를 합니다. 사업체 및 지방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 업체들로부터 조달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80%를 외부로 소비를 하고 자신들의 지역 경제에서는 단 20%만 소비합니다.

1회전: 10,000엔의 20%, 2,000엔이 그들의 지역경제에 남습니다. 2회전: 2,000엔의 20%, 400엔이 남습니다. 이렇게 횃수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지역경제를 위해 대략 12,500엔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B도시가 외부로부터 10,000엔을 얻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B도시의 사업주와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 경제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그들 지역의 쇼핑몰이나 상점에서 대부분의 재화를 구매합니다. 사업체 및 지방정부는 지역 사업체로부터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를 조달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80%를 내부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사업체로부터 얻을 수 없는 단 20%만 외부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합니다.

1회전: 10,000엔의 80%, 8,000엔이 지역경제에 남습니다. 2회전: 8,000엔의 80%, 6,400엔이 남습니다. 횃수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지역경제를 위해 대략 50,000엔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확보한 같은 수준의 10,000엔의 돈을 가지고 A도시의 12,500엔을, B도시의 50,000엔을 얻습니다!

이를 “승수효과” 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차이는 왜 우리가 돈을 지역경제 내에서 유지하고 순환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역경제에서 “구멍” 을 찾는 방법

좋은 소식은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에서 “구멍을 찾고 막는” 방법과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멍을 막기 위해 여러분 지역경제 어디에 구멍이 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구멍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구멍들을 “시각화”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역 산업연관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는 산업연관표(“입력-출력표”)를 작성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정부들도 자체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이 산업연관표는 다양한 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산업이 또 다른 어떤 산업으로부터 얼마만큼 구입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돈을 버는지” 그리고 “돈을 잃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산업이 바로 여러분 지역경제의 “구멍” 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이나 광역 수준의 산업연관표는 여러분 도시나 소도시에 적용하기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시나 소도시를 위한 자체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지역 수준의 산업연관표에 대한 여러 예시들이 있고 저는 몇몇 지역 도시들을 위해 그들이 공식적인 데이터 및 지역 사업체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조합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홋카이도 시모카와 소도시는 자체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표는 그들의 가장 큰 구멍을 보여줍니다. 바로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 도시는 일본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에 속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씨에 육박하고 이는 난방을 위해 연료 소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난방 및 전기를 위한 케로신(등유 계열)과 다른 연료에 대해 매년 13억 엔을 소비했으며 연료를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돈이 도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결과로, 그 도시는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 보일러 설치를 통해 에너지 구멍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 지역 삼림산업으로부터 풍부한 잔여목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도시는 난방 요구의 49%를 자체 생산된 난방으로 공급하며 지역경제로부터 누수되는 금액의 수백만 엔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LM3(국지적 3승수)

이 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에 대한 전체 그림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단 하나의 기업이나 기관이 이것에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경경제단이 제안한 LM3(국지적 3승수)는 개선을 위해 어떤 공간을 찾는 데 계획을 세우는 개별적인 조직을 돕는 도구입니다. LM3는 국지적 3승수를 뜻하며 3회전까지 소비하는 것을 살피며 지역경제에 소비하는 조직의 승수효과에 대해 계산합니다.

쇼핑 설문조사

또한 소비자 그룹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자치체의 지방정부가 그러한 쇼핑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트랜지션타운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라 불리는 인구 8,000명 한 도시의 주민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수행해 식음료 구매의 1/3만이 도시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식음료의 2/3에 대한 금액은 도시에서 흘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계산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단 10%만이라도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식음료 소비를 지역의 독립적인 식품상점으로 돌린다면, 도시는 지역경제에서 2백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트랜지션타운 토트네스는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식품공급처를 이용하도록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으로 바뀝니다.

작은 것의 충격

일본의 이 분야에서 걸출한 전문가인 코 후지야마 박사는 지역 내로 1퍼센트의 수입을 돌려 성장시키

는데 목표를 두고 “1% 수입돌리기”를 옹호해 왔습니다. 이 전략은 더욱 안정적인 사회를 지원하고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진화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연료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내에서의 조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지역 조달 비율을 50%까지 돌릴 수 있다면, 인구 1,620명의 마을 기준으로 거의 2억 엔 가까이 생산/소비량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부 지역으로부터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지역의 수입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시마네현의 산악지역 연구센터에 의해 수행된 가구지출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빵에 대한 연간 지출이 약 25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빵에 대한 총 수요는 약 8만 3천 달러에 이릅니다. 만약 사람들이 빵을 외부 지역의 마켓에서 사면, 앞의 예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지역 베이커리에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빵을 산다면, 판매량은 한 베이커리의 수익을 커버하기 충분할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원재료 구매에 대해서도 외부 지역으로부터 구매량의 1%를 지역 생산업체로 돌리는 것을 옹호합니다. 1%의 재배치는 지역의 수입을 1%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회복의 1%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간지역의 한 가정의 지출에 대한 설문조사는 식비의 약 절반 정도가 외부 지역에서 소비되었고, 특히 외식(식당 등)으로 소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구당 연 평균 식비지출은 약 4천 5백 8십 달러였으며, 이중 단 1.4%만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에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진실로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슈퍼마켓, 편의점, 호텔 및 복지시설에서 지역 농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하는 지역생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식을 외부 지역 상점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그는 인구 4,000명의 산간지역의 수입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연구를 도입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식품 및 연료 항목의 50%가 지역 상점에서 구매될 경우, 약 13만 3천 달러의 수입이 새롭게 창출되고 이는 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경우인 지역 내 구매율은 변화하지 않은 채 지역 내 생산이 30%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입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21가구에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꽤 크게 증가합니다. 물건들을 상점에서 판다고 생각할 때, 베이커리나 과자점과 같은 새로운 사업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 생산품의 지역 내 순환율이 증가하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제 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역의 경제나 인구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마네현 서부의 슈퍼마켓체인을 운영하는 키누야기업인데, 키누야는 자사의 전체 제품의 지역생산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총 판매의 약 8% 정도가 지역 내 생산품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15%까지 증가했고, 이는 키누야가 지역 생

산품 사용을 매년 1%씩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농부 및 식품유통업자는 자신들의 채소 및 유통식품을 슈퍼마켓에 가져와 15%의 커미션만 지불하면 지역 생산품 코너에 비치해 팔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이 슈퍼마켓 체인의 섹션에서 독점적으로 연간 약 8만3천3백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607명 가량의 농부 및 식품 유통업자들이 키누야 슈퍼마켓에 자신들의 상품을 납품하고 키누야의 총 지역 제품구매는 이제 약 1천3백3십만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채소들은 싱싱하고 비싸지 않으며 맛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마켓시스템은 여러 지역 내 생산 제품을 소량으로 산간지역에서부터 근방 지역까지 순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 가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 국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판대가 있는데, 작은 트럭이 농장에서부터 근방의 도시로 트럭 뒤에 채소를 싣고 직접 가는 것입니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 사회시스템에서 우리는 소량으로 다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형된 접근법은 우리가 맛있는 식품, 매력적인 생산품 및 경제가치를 지역사회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제공합니다.

지역경제의 “구멍”을 막는 방법

여러분 지역경제에서 몇 개의 큰 구멍을 발견한 후, 도시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결과에 대해 의논하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한 가능한 프로젝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토트네스의 사례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2,300명이 거주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섬 아마츠는 사업이 어려워진 세탁소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지역의 호텔 및 숙소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60km 떨어진 육지의 세탁소로 사용한 이불을 보내고 세탁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숙박관광업체에서 세탁 비용이 치솟게 되었고 섬 지역은 지역경제에서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섬 안에서 순환되던 세탁으로 지출되던 비용은 이제 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츠는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세탁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세탁소는 지역의 세탁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판매되는 관광기념품 생산으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이곳의 관광기념품의 대부분이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 및 지역의 사업체에 대해서 “지역생산으로 돌려오기”의 방법 및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큰 구멍의 일부에 집중하기에 꽤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식품 구멍” 및 “에너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과 에너지에 대해 자체 공급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여러가지 계획과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돈을 다시 지역 내로 배치하기

지역 내에서 필요한 돈을 다시 내부로 배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내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전략

투자를 통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받는 “느린 돈의 움직임” 과 같은 많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NPO은행의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의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운동이 촉진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특정한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역사회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우리는 자금 지원을 원하게 되는데, 즉 돈을 빌려서 사업체를 세우거나 지역사회를 재활성화 하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사회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만, 평범한 금융기관들은 상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고객에게는 자금을 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들의 총비용 지출과 이자소득(이윤 폭)의 차이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책은 위험성이 적고 경제적 이득이 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것입니다.

한편, 돌봄 또는 복지, 자연환경보존, 재생가능에너지원 촉진, 청년 또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채무를 심각하게 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상당히 공공의 비영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득 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소수의 프로젝트는 위험성은 높고 수익은 낮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평범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종종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에서는 돈은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돈을 모으고 우리 의도에 따라 돈을 필요한 곳에 유통시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의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운동의 시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커뮤니티은행, 시민킨코(시민은행) 및 NPO은행과 같은 시민 주도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주로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건당 수백달러 정도의 투자를 요청하고, NPO 또는 개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은 시민들의 활동과 지역을 위한 곳에 사용됩니다.

일본 NPO-은행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5년 3월 31일 현재 14개의 시민 주도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투자된 금액은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하면 총 484만달러 정도가 됩니다. 대출금은 합산하면 2천6백8십8만달러 정도 됩니다. 또한 다수의 건들이 “지역경제” 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를 위한 좋은 용도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귀중한 돈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요구에 맞게 생활클럽소비자협동조합(The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은 도쿄 커뮤니티파워은행(도쿄CPB)를 생활클럽의 활동에 기반해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도쿄 CPB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가지고 하는 사회사업체나 사회복지사업을 돕는 비영리의 “시민은행” 입니다. 주요 고객은 도쿄에 거주하고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입니다. 2015년 8월 31일 현재, 도쿄 CPB의 총 회원 수는 개인 601명, 기관 47곳을 포함해 648명입니다. 그들의 기부금은 미화 88만달러로, 68건의 대출 247만달러에 이릅니다.

사례 연구: 미나마타시

여기서 지역 자금의 유통분석을 통한 일본의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지역사회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민들을 도와 지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희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형성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경제의 축소를 방지하는 것이 이 노력의 핵심입니다. 지역이 경제규모의 축소를 멈추고 다양한 매력으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비단 지역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도 중장기적 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지역경제 사이클 분석”이라는 분석장치를 개발해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강점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분석의 주요 특징은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경제 흐름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생산적인 관점에서 유통 및 소비 관점까지 확대하여, 소비, 투자 및 지역 간의 지불에 대한 균형을 포함합니다.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및 지역간 지불 균형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돈을 식별하고 지역경제 순환현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느 산업분야가 지역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지와 그 규모, 그리고 최종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와 같은 생산재의 지역간 조달 비율 등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경제 사이클의 장점들을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을 지역 외부에서 벌어들여야 하고 지역에서 돈이 흘러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밖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외부와 차별화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외부의 요구를 끌어내 지역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 내의 요구를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의 방법

이 분석에서는 지역경제 활동을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및 지역 간 수지분배 (지역에서의 전체 매출과 지출 사이의 차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역 자금 사이클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작업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GDP,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제공하는 지역자치단체의 산업연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통계의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사이클 분석을 통한 문제 식별하기

(관점 1) 생산: 어떤 지역산업이 우세한가?

지역 외부의 자금을 끌어올 만한 미나마타시의 산업에는 화학제조와 같은 제조업을 포함해 의료/돌봄 서비스(2차 의료영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2010년 도시 내 생산가치 약 20억달러 상당 중, 한 중앙 비즈니스 그룹(회사 A)는 약 5억4천9백만달러인 27%로 집계되었고, 다음으로 의료, 복지, 돌봄 분야에서는 2억4천5백만달러인 12%로 집계되었습니다. 부가가치의 경우, 회사 A는 약 2억3천6백만달러로 23%, 의료/돌봄 서비스 산업은 1억3천7백만달러로 15%에 해당되었습니다. 2010년 일본 제조업이 전체 총생산량의 19.6%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회사 A는 미나마타시 부가가치 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점 5, 지역균형을 고려할 때, 미나마타시 밖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업 역시 회사 A에 의해 5천1천만달러, 다음으로 의료산업 9천5백2십4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제품, 펄프/종이/나무제품 및 전기부품 등의 다른 제조업은 경쟁이 치열한 회사들을 통해 지역 외부로 약 4천2백8십6만달러에서 5천4백2십9만달러 가량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시의 한 회사(회사 A)는 자본 투자 분야에서 미나마타시 내부의 다른 회사들과 사업을 했으나, 원자재를 100퍼센트를 도시 외부에서 조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A의 도시 내 생산 확대는 이미 존재하는 장치에 대해 제한적이고, 이는 도시 내 경제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관점 2) 유통: 지역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수입으로 해석하는가?

2010년 회계연도에서 지역의 전체수입 총 10억3천6백만달러 가량 중 노동수입이 5억7천1백만달러로 약 5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1억2백만달러 정도는 의료/돌봄 산업과 관련된 반면, 회사 A도 1억2백만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에서 회사 A의 부분은 지역시민 관점에서 보면 기대치보다 낮았고, 이는 비즈니스모델과 다른 인자들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최고조일 때 직원에서 1/5 가량이 떠나 그 결과로 도시 전체의 노동수입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관점 3) 소비: 지역주민들의 수입은 지역에서 소비되는가?

지역민들의 이동, 즉, 미나마타 주민들이 쇼핑과 같은 개인적인 일로 어디를 가느냐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주민의 절반 정도가 휴일에 도시 외부로 쇼핑을 하러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소매상의 판매가 거의 4천7백6십2만달러 가량 하락한 반면, 인접 도시의 상업지구의 소매상 판매는 약 8천9십5만달러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에서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도시 외부 지역에 대한 소비를 통해 자본이 빠져 나갔음을 가리킵니다.

(관점 4) 투자: 주민들의 저축이 지역 사회에 재투자되고 있는가?

미나마타시의 금융기관에 입금되는 저축에 대한 분석에서 9억5천2백4십만달러 가량 이상 중에서 단

20~30퍼센터 정도만이 도시에 재투자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잔여금은 정부채권 구입이나 도시 밖으로 대출해 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역 내 파이낸싱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자세, 공장과 장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 성향의 부재로 생각됩니다. 회사 A는 미나마타시는 “비즈니스 캐슬타운” 으로 불립니다. 회사 A와 하이테크놀로지에 관한 그 하청업체 간 사업관계가 수직적인 반면,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는 매우 적습니다. 이런 형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잘 창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관점 5) 지역 간 수지 분배: 다른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 나가는가?

관점 1에 의하면, 제조업과 의료 산업이 도시 외부에서 자본금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 및 상업분야는 지역의 요구를 맞춰주지를 못했으며 이러한 산업의 자본금은 도시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부동산, 통신, 전기, 가스, 열 공급 비즈니스 및 무역 등이 모든 산업에 대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나마타시에서는 모든 산업의 요구에 맞는 비즈니스 서비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이런 비즈니스 서비스의 순수유출은 많은 회사들이 도시 외부에서 서비스를 의뢰해 사용했기 때문에 적자였습니다. 더구나, 전기, 가스 및 휘발유 기반 제품과 같은 생산품에 대한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 때문에 지역생산의 약 8퍼센트, 즉 8천1백9십만달러 가량이 역시 도시 외부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사이클 분석을 이용한 미나마타의 환경타운빌딩에 관한 계획

미나마타시에서는 시민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경제 사이클 분석을 이용해 “환경타운빌딩”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경제 사이클을 확장하기 위한 탄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지역 내외의 소비와 수요를 활발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에 따라 이 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저탄소 관광을 홍보해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타고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기차 노선을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탄소 관광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장소” 개념 하에 환경친화적인 공간이 특징적인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관광산업 매출에서 확실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시민참여 좌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지역의 임업 및 발전소 운영에 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찌면 다른 도시로 재생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팔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도시 내에서 재투자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경투자 가동을 위한 파이낸싱 시스템이 고려되었습니다. 지역의 중소 사업체의 환경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신용 보증기업들에 3년 동안 이자를 보조하고 총 보증금액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효율 조명 및

에어컨과 재활용 및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대출금이 증가했습니다.

요약

지역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지역화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려놓기 위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새 양동이 모델 Leaky Bucket Model을 예로 들어 여러분 지역경제의 “구멍들”을 찾아서 막는 여러 가지 탄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세스의 미덕은 효과적인 프로세스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때문에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Palsystem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새로운 협력시도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1. 서론

Palsystem 소비자 협동조합은 11 개 현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후쿠시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에 소재하는 10 곳의 지역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우리의 조직은 "협동조합 회원들이 직면한 일상 생활 문제 해결"과 "회원들을 위한 평생 지원"이라는 사업 개념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Palsystem**은 150 만 가구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회계연도의 매출은 약 2,160 억엔입니다.

Palsystem은 산초쿠 (sanchoku: 산지 직송; 소통을 통한 직접 생산자 채널) 및 환경보호를 사업 개념으로 하여, 회원들의 참여 및 생산 지역과 생산자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 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 년 지속 가능한 세계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누구도 뒤쳐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과 더불어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노력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사람,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우호적인 소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의 보급과 유기 농산물의 유통이 **SDG**의 개념에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SDG**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가치 상승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 노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 및 **SDG**가 단순히 **CSR**(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회사의 홍보활동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 전체를 **SDG**의 17 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지구, 환경, 사람, 공동체 및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Palsystem은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 등의 이니셔티브를 인정받아, 제1회 일본 **SDG** 상에서 **SDGs** 추진 본부 상을 수상했습니다. 280개 이상의 조직과 기업 중에서 **Palsystem**은 협동조합 커뮤니티 및 유통업계 부분의 유일한 수상자였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이유 중 하나는 "제품 선택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었으며, 이

러한 노력이 지역 사회 재생뿐 아니라 유기 농업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품 라인업의 일환으로) 유기농 제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및 판매에서 소비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핵심에 유기농을 배치하여, 사람, 환경 및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왜 국내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Palsystem이 국내 및 산초쿠(산지직송) 재료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상업용 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낮은 가격만을 추구한다면, 이들 재료들은 수입 재료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비용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수입 재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전자 변형,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등의 다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Palsystem**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lsystem에는 제품 개발 5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들은 우리의 제품 개발 정책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한 **Palsystem**의 제품을 통해서, "식습관의 개념", "안전과 안심", "식량 자급률" 등의 문제에 대한 행동을 (많은 회원들과 논의 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Palsystem**이 항상 지키는 원칙입니다.

제품 개발 원칙

1. 자연과 생물의 원래 기능을 존중하는가?
2.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식량 생산과 삶에 기여하고 있는가?
3.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의존성, 관성 또는 타협이 있는가?
4. 먹기에 좋고, 가지고 싶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5. 진정으로 각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3. **Palsystem**의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동"

국내 생산에 집중할 경우, 자연스럽게 가격 외의 다른 가치를 전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Palsystem**은 식량과 식습관이 실제적이고, 전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품 개발 원칙에 부합하고,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제공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가치입니다.

(1) 행동 방침 1: **Palsystem** 제품의 가치를 알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rade-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한 무역 자유화 및 규제 완화

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삶의 원천이 되는 음식과 일상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값 싸고 편리함에 오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삶의 보호에 필수적 일뿐 아니라, 국내의 생산자, 지역 사회 및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구매는 투표 행위이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 행동 방침 2: Palsystem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제조업체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협동조합 회원들이 (제품 개발 및 제조업체들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생산 지역 및 제조업체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생산과 제조의 초점과 노력에 대해 배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3) 행동 방침 3: Palsystem 제품을 낭비없이 행복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낭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면서, 많은 협동조합 회원들과 그 가치를 논할 것입니다.

우리는 UNESCO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추가된 **washoku** (전통 일본 요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기후 보호와 전통 식품에 뿌리를 둔 식품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mottainai** (낭비 없음)의 개념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Palsystem**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충동적으로 구매하여, 버리기 보다는) 매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매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것입니다.

4. 농업이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농업은 식량 생산 기능 외에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활용하고,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체를 육성하여 식량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농업의 원래 구조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는 폐기물로 변할 수 있는 잔류물을 가치있는 식량과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축산업 및 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합니다.

Palsystem은 자연의 기능과 농업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유기 농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우리가 잃는 것

원래 농업은 (대부분 무료로)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음식 또는 보기에 좋은 농산품에 욕심이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 - 50 년 동안, 농업 정책은 작물 수확량의 증가 및 외관상 좋은 제품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농업의 원래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살충제와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에 의존하는 농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토양 내 많은 미생물이 소멸되고,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원래 기능은 변질되어, 농약과 화학 비료를 토양과 물에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편리한" 방식으로 "저렴하고 보기 좋은" 농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6.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협력.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는 농업의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서, 생산자는 가능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비 탐욕적인"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 추진에 있어서 **Palsystem**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것은 생산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을 받아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이해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식량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여, 원래의 농업 메커니즘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비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Palsystem**의 환경 친화적 농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7. 운동과 사업 양쪽을 동시에 추진: 생산자 - 소비자 협의체

Palsystem이 가격 외의 제품 가치를 존중하는 협동조합으로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협업 플랫폼인 **Palsystem** 생산자 □ 소비자 협의체 (Producer-Consumer Council: PCC) 입니다. PCC는 **Palsystem**, 소비자 및 협동조합에 농산품 및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들과 동등한 토대 위에서 논의하고, 더욱 엄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에서 매우 독창적인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조합들이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이 조합들은 생산 지역과 **sanchoku**(산지 직송)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협동조합이 통합되고 커지면서, 구매자 파워에 맞서기 위해 생산자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과 구매 사이 또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과 구매/소비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해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PCC는 1990 년에 설립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sanchoku**(산지 직송) 제도의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PCC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끄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Palsystem**의 **sanchoku**를 유지해 왔습니다. **Sanchoku** 활동의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생산자와 **Sanchoku** 활동의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생산자와 우리는 농민과 도시 주민 간의 자발적 연대를 강화하여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CC는 현재 159 곳의 생산 지역과 12 개의 협동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일하는 강력한 연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CC는 3 곳의 지역 블록 활동 (토호쿠/홋카이도, 간토/중부, 간사이/서부 지역)과 5 개의 섹션 (계란, 채소, 쌀, 과일 및 가축)을 중심으로 회원을 위한 워크샵 및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소통 포함) 교류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의 생산자들에게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반대 운동 및 신생 에너지 이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Palsystem은 지역 협의체 설립을 위해, 다수의 지역 사회, 정부 및 생산 지역과 함께 작업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다음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사이클 지향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제품 개발을 위해 결성된 15 곳의 지역 협의체;

식품 가공 등 농업 - 상업 - 공업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2 곳의 지역 협의체;

지역 **sanchoku** 식재료 가공을 촉진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2 곳의 지역 협의체 등.

좋은 예가 오키나와현 온나 빌리지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는 온나 빌리지에 산호를 심는 활동을 통해, 도시와 어촌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온나 빌리지 어업 협동조합, 온나 빌리지, 모즈 쿠 (해산물) 제조업체 및 현지 NGO들이 이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8. 산초쿠(Sanchoku) = 오프 마켓 유통의 진보된 형태

오프 마켓 유통의 주 목표는 (시장을 통한 유통으로 인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생산자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안전 및 안심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추적 가능한 농산물 및 축산물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시장에서 판매하기 힘든 제품을 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오프 마켓 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Palsystem의 경우, 소비자는 생산 공정뿐 아니라 제품 품질면에서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및 축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오프 마켓 유통 제도를 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장은 제품 가격을 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는 오프 마켓 유통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가격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회원들이 수집 및 유통에 관여하여, 생산자와 제품 재배 방식 및 품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원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

도는 생산 지역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 오프 마켓 유통에서만 가능한 기타 혜택

종종 생산업자가 원하는 시장 가치와 소비자가 실제 원하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유통의 경우, 지역 특산품이 양산되어, 균일하며 고도로 선택적인 제품 홍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경우, 외관 및 유통기한에 초점을 둔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Palsystem의 **sanchoku**의 경우, 각 생산 지역의 고유성에 중점을 둡니다. **Palsystem**에서는 출하 및 배송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통기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Palsystem** 고유의 이름과 레이블을 붙인 동일한 야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통의 편의성보다 맛, 안전성 및 개성에 중점을 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 차세대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Palsystem sanchoku의 미래 구축

최근 일본은 농업 및 축산업 농민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의 평균 연령은 60 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 역시 낮게 유지되어서, 전업 농민 수가 줄어들고, 농업 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농업인 벼농사의 경우, 경작 감소 정책 (생산 조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최근까지 생산량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축산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게는 사업 환경이 어려워 대규모 비즈니스 지향적인 생산자들만이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Palsystem**은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에만 전념합니다. 차세대 육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농업과 축산업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과 직업 자체에서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산초쿠에 종사하는 동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젊은 생산자들의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 개발

Palsystem sanchoku의 생산 지역의 경우, 젊은이들이 차세대 농부로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생산하는 일부 주요 산초쿠 생산 지역의 경우, 젊은 생산자들이 스킬, 기술 및 경영 관련 정보의 교류를 위해 독립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니가타 현의 한 생산 지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과 농업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 세대가 운영하는 유기 농민 단체와 유기 농법을 연구하는 젊은 생산자 그룹이 스킬과 기술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농사를 지을지를 (농가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관찰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부모들은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 상황을 검토하여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들이 사업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 가업을 계속하라고 자녀들에게 강력히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이 불확실할 경우, 다음 세대 이전에 시업을 종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업에 종사할 경우, 새로운 도전에 열중한 편입니다. 많은 생산자들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Palsystem은 이러한 열정을 인식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신기술을 이용한 유기농법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경우, 열정적인 생산자가 자신있게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12. 지역 단체와 개성있는 생산자의 연결

다음 세대로의 이전과 더불어, 생산 지역과 농업 협동 등 다양한 지역 조직 간의 관계 역시 변했습니다. 산초쿠(sanchoku)에 오랜 기간 참여한 대부분의 생산 지역들은 체계화된 배송과는 별도로 농업 협동조합 자체의 배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젊은 생산자들은 전통적으로 농업 협동조합이 취한 방향을 인정하면서도, 농업 협동조합 등 지역 단체들과 다시 협력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Palsystem의 sanchoku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과 생산자 단체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협동조합은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한편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의 고유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소규모 생산자 단체는 안정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관 및 배송을 위한 대규모 시설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Palsystem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서로가 협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업 협동조합은 생산자 단체의 독특한 활동에서 배울 수 있고, 젊은 생산자들은 농업 협동조합이 관리, 유통 및 보관 등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함으로써 농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Palsystem은 더 많은 생산과 유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버려진 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젊은 생산자를 영입한 후, 농업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3. 참여보장 제도(PGS)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준 높이기 (양 방향 인증)

참여보장 제도(PGS)에서는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농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눈으로 작업을 확인하고,

생산자의 생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합니다. PGS 감사인 교육은 고객이 감사인으로 sanchoku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소비자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Palsystem은 유기농법을 농업의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감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생산 지역의 생산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 년 현재 **Palsystem**의 산초쿠(sanchoku) 생산 지역의 경우, 유기농 JAS (일본 농산물 표준) 인증을 취득한 지역이 일본 전체 면적의 18 %를 차지합니다. 유기농법을 추진에는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기농법은 환경 보호,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한 예가 농업 복지 협력입니다.

농업 복지 협력은 글자 그대로 농업과 복지 분야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및 빈곤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농장 작업에 참여시키고, 농산물 가공 및 판매분야에서 일하고, 소속할 수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Palsystem**은 주로 유기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 분야의 농업 복지 협력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적절한 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및 신체적 독립성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삶의 큰 주제 중 하나인 행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농업은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 복지 협력은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자신들이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기농법을 통한 지역 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과 복지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이 이니셔티브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14. 농업과 식량을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제도 개혁

우리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시도는 생산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100% 이끌어내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을 추진하고 다차원적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이니셔티브인 유통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화된 유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력한 생산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유 (홋카이도 지역)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낙농가는 자체 공급 사료로 방목하는 반면, 다른 곳은 수입 사료를 사용하여 창고에서 소를 키웁니다.

Palsystem의 회원이 전자의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우유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두 유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우리는 일부 생산자에게 특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생산자들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니셔티브는 협동조합 회원 간의 소비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식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공식품을 먹지 않거나, 외식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국내산 제품을 먹고 싶어서 햄버거를 직접 만들 경우, 각 성분의 생산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의 경우, 수입 재료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생산자가 만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이라고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Palsystem의 쌀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100 ~ 130 엔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Palsystem에서 유기농 쌀을 사서 주먹밥을 만들면 30 ~ 40 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명한 식습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하에서, 식품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이 품질면에서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등 사료와 첨가제 사용에 관한 표준을 포함하여, 안전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SPS 협약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WTO 회원국들이 인명,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함)은 첨가물, 오염 물질 및 동물용 약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이 안전보다 강조되면서, 국가 표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비정상적인 기후 및 선진국의 기아 현상을 감안하면, 일본이 향후 다른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성화하여, 다차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alsystem은 농촌 지역 사람뿐 아니라, 대규모, 소규모 농민, 전업 및 파트 타임 농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농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작물 - 가축 협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양쪽을 풍요롭게 함.

작물/가축 협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분야 중 하나는 사료용 쌀입니다. 이와테 현과 아키타 현의 쌀 농가, 돼지 농가 및 JA (일본 농업 협동조합)가 공동으로 쌀을 사용하여, 브랜드 돼지 고기인 코메 부타(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고기는 회원들에게 배달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논, 벼, 가축, 거름 및 논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밀한 연결이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다른 자원 역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lsystem은 농작물 및 가축업을 위한 공동 회의를 조직하여, 많은 커뮤니티를 위한 유통 메커니즘을 개발해왔습니다. 우리는 **Zennoh** (농업 협동조합 협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사료를 산 초쿠 (**sanchoku**)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비료 또한 생산자와 협력하여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통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줄여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유형의 식량 시스템입니다.

반면,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TPP**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소비자가 진정으로 건강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 사회는 더 나은 환경, 버려진 농지의 활성화, 생물 다양성 향상 및 전통 예술과 문화의 보존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 결론

우리는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생산 지역, 지역 사회, 지자체 및 기타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Palsystem**의 목표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려는 열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논의하고, 연계하고, 지원하고, 공유하여, 상호 공평한 조건에서 계속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제이톰트
(Jay Tompt)

먼저, 약간의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어." 이것은 이제 거의 모든 사적, 공적 대화에서 들리는 일상적인 의견들이다. 글로벌 신자유주의, 기업 자본주의, 산업 성장, 대량 소비주의, 가부장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적 패러다임은 생태계 파괴, 생물종의 대량 멸종, 지구 온난화, 민주주의 기관들의 부패, 증가하는 불평등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의 권력 구조가 이러한 문제의 결과이며, 건강, 범죄, 착취, 강제 이주, 외국인 혐오 정치, 폭력 및 불공정 등의 형태로 현실 사회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또한 이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개혁될 수 있다고 믿거나,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계없이,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자연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 3.0, 녹색 경제, 청정 경제, 신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 순환경제, 포용적/착한 성장, 역성장, 안정된 국가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일부 중복이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대해 지나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제안 중 일부는 전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기존 체제 내의 개선을, 나머지 일부는 점진적인 기술적인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많은 아이디어 및 접근방법에서 영감을 얻은 “기존의 껍질 내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실용적 활동에 속한다. 이러한 우리의 관점과 경험의 공유와 관련하여, 우리는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사항에 대한 지식 공유 (knowledge commons)에 기여하면서, 관련 활동과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생산적인 중심점”이 되고자 한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견고하며, 탄력적인 사회 운동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도로 저술되었고, 일정부분 가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독자들이 반론과 논박, 변증법을 제기하거나, 무관심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모든 차원 (지역 사회, 마을, 도시, 지역 등)에서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생태학적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재생가능하고, 복원력이 구축된 더 나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사상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

간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혁신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경이로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독단적인 처방을 주장하지 않는다. 넓은 시야로, 상향식, 하향식 및 좌우 대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면 등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태 - 사회 - 정치 - 경제적 현실인 대규모 복합적 적응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겸허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시민 주도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이 접근방식은 지난 몇 년 동안 Totnes 및 기타 여러 곳의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다른 관점과 상황에서 발생한) 프레임워크의 요소들을 보아왔다. 따라서, 이 접근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접근방식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실적인 용어로,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연구를 현지화 생산, 소유 및 책임감; 소비 축소, 커뮤니티 복지 증대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기반으로, 상향식이며, 경제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른 노력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재미있고, 삶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이러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작업이다.

행동을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단순한 명제이다: 우리가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생태학적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재생력이 있고,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경제 체제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새로운 경제 주체, 관계 및 모델이 등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기존 주체, 관계 및 모델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만한 시간이 없다. 슈페터(Schumpeter)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의 신속한 '창조적 재구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동으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재생할 경우,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 재창조 및 혁신을 의미한다. 우리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큰 혁신적 도전은 없으며, 이것은 가장 큰 도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제안의 논리는 모든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우리가 시민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이며 개인적인 것이다 (물론 일부 시민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 및 대인 관계의 영향이 멀리까지 미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면, 기업과 NGO를 설립할 수 있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투자를 하고, 탄원서에 서명하고 투표에 참가하며, 대규모 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안의 맥락에서, 그룹, 단체 또는 플랫폼으로 함께 노력하는 시민들은 사회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조직할 수 있다.

NGO, 정부 기관 및 기업 등 공적인 조직은 이러한 그룹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시민들이 내부적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내부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단순히 조직의 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들 조직은 시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동원될 수 있으며, 혁신과 긍정적 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관 주도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할 여유가 없다.

지역 및 지역 경제에 관심을 두고 보면, 새로운 경제 주체, 관계 및 모델이 출현하고 변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최소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변화 지향적 기업가 문화 촉진
-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 동원
- 지속가능하고 재생적인 '진취적인 기업 생태계'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융합 네트워크” 구축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이드하고, 커뮤니티 경제 발전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D), 친 사회/친 생태적 기업가 정신, 협동주의 및 공동 재산 등의 지원을 위해 기존에 진행중인 노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시민이 주도하고, 커뮤니티가 참여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것은 더욱 '상류부분(upstream)'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생산적인 관계로 유도한다. 또한 혁신, 연대, 호혜주의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역할과 공간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접근방식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고, 자원을 유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연계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유용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 다양한 명칭

우리의 접근방식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청중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경제학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계층 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표현하는 언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가치관, 신념 및 정치적 대의기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슈와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시민 주도. 이 접근방법을 (“커뮤니티 주도”와는 반대로) “시민 주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주의적 문화 및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자원이 정부 기관, 재단 및 자선 단체에 의해 '커뮤니티 주도' 이니셔티브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언어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것은 없다. 첫째, '커뮤니티'란 개념은 애매하고, 부정확하다. 장소, 공유 문화 또는 네트워크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되는가? 정부, 재단 및 자선 단체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의 경우 '커뮤니티 주도'는 종종 지역 자선 단체 또는 NGO, 특별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 그룹'을 의미한다. 이 단체들은 전체 인구의 작은 하위 집단이며, 선출되거나 인구학적으로 대표는 아니지만 '공동

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그룹을 “커뮤니티 주도”라고 하면, “블랙 박스”가 되어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제 3 섹터'와 '자발적 섹터' 등 획일적인 관념에 의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유형의 획일적 구분은 현재의 주류적인 문화적 이야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안에서는 정의된 맥락에서만 표현되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시민 사회'의 시민이지, 노동자 또는 소비자로서 '민간 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근무 시간 후에 자원 봉사하는 등의 “커뮤니티” 차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화는 행동을 시작한 사람, 대인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사는 곳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전체 시민으로 나온다. 이들은 종종 불의에 반대하여 움직이며, 옳고 그름의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 동기 부여된 개인적인 주권과 책임에 대한 그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시민들은 여유 자금이 있거나, 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유권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주도자, 커뮤니티 조직가, 기업가, 투자자, 멘토이다. 시민 주권은 소비자, 상점 주인, 근로자 또는 관리자로서 근무 시에도 적용되며, 투자자로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정부 구조와 헌법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구조와 헌법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수도 있다. 지지를 받고, 본질적 가치에 근거하는 활동은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새로운 문화적 규범이 된다. 경제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협조적이고, 협력적인 기업 모델의 무대가 된다.

경제적 전환.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과 사회로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의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우리가 21 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음식, 집, 에너지, 커뮤니티, 문화 등에 대한 우리의 욕구 충족 방법을 극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생태계 한계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자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 과학자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80 %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더 많은 빈도와 강도로 중앙 집중화된 글로벌 공급체인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한편, 세계에는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00 명 미만의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집단이 전 세계 부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현재의 지배 구조 모델은 소비 및 성장 패턴을 영속화시키는 자유 무역 협정과 글로벌 자본 이동으로 입증되듯이 이들 부자들과 기업 집단에 계속해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정보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중대하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기관, 정부

기업, NGO 및 기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파리 협정, 탄소 배출권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프로그램, 윤리적 및 친환경 소비자 캠페인, 일부 기술 혁신 등이 그 예이다. 모두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이 생태계 경계를 넘어서고, 민주주의 기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우리는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노력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지역 차원이다. 궁극적으로,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적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 새로운 생산 및 공급 모델, 새로운 생계 수단, 역할 및 관계,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장과 외부에서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 소유의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유 및 책임을 다르게 지는 지역적 대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행동 변화뿐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경제 주체, 관계 및 모델이 진화해야 하지만,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 관계 및 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체에는 창조하고 혁신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은 새로운 기업가와 기업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업가들뿐 아니라, 투자자, 멘토, 후언자 및 친구, 활동가 및 조직가,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및 협회 등 많은 새로운 주체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변화 지향 기업가'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자원, 조달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앵커 기관'뿐 아니라, 지역 정부, NGO, 대학 등이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 들 주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 구축이 가능하지만, 관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 (예: '지역 사회 지원 농업' 계획 및 단일 통화를 대체하는 대체 교환 수단); 협동 조합 등 "소유자"와 "노동자"사이 새로운 관계; 'Detroit Soups', 해커톤(hackathons: 끝장 토론), 이벤트 및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한 커뮤니티 구성원과 지역 기업가 간의 새로운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발전, 사회적 기업, '지역 사회 부의 축적', 공유지 및 공동재산, 피어 - 투 - 피어(peer-to-peer) 생산, 오픈 소스 등 기존 모델만큼 협력적 기업 및 지역 사회 참여 모델 역시 중요하다. 오픈 소스 기술, 피어 투 피어(peer-to-peer) 생산, 플랫폼 협동 조합뿐 아니라 개인회사 및 비즈니스 역시 기회가 있다.

요약하면, 한 곳에서 경제적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주체, 관계 및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집단 행동, 자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 규범을 창출할 수 있다. 프로세스 자체와 결과 모두 다양성과 탄력성을 증대시킨다.

접근 방법

이러한 새로운 주체, 관계 및 모델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변화 지향적 기업가 문화 창출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가 및 기업을 위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을 동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관, 구조 및 공간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적 변화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다양한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변화지향적 기업가' 문화의 추진. '기업가'의 역할과 특성은 문화적인 것이다. '기업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할이다. 우리의 문화 패러다임에 의해 창출된 '기업가'의 개념은 위험을 감수하고, 천재성을 키우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대 기업을 건설하고, 끝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며,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브랜드 또는 세계 증권 거래소의 상장(IPO)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영웅 기업가'를 생산하는 문화는 전 세계에 존재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소비자 주의/ 신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문화의 전형은 실리콘 밸리의 문화일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곳에서는, 의욕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믿는 신화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카페, 레스토랑, 사교 모임 등 공공 장소에서 이러한 대화를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 언론 매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도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업가 (또는 잠재적 기업가), 투자자 (또는 잠재 투자자), 혁신가, 기술자, 창업 팀원 및 공동 설립자, 후원자, 트레이너, 멘토, 치어 리더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스타트업 및 투자자 사무실뿐 아니라,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공동 작업 허브, 회계사, 변호사, 고문 등 이미 구축된 환경이 있다. 성공, 실패 및 두 번째 기회 등의 스토리 역시 풍부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통로가 명확하고, 풍부하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실리콘 밸리에는 특정 브랜드의 기업 문화에 의해 직접 야기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 역시 많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기업 문화를 발전시킨 다른 지역에서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실리콘 밸리와 어떠한 스토리도 없고,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투자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려는 생각과 의욕이 있더라도 통로가 없는 많은 다른 곳을 비교해보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관론과 “나는 절대 안돼” 라는 태도를 극복하게 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겠는가?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첫째, 글로벌 경제 체제는 생산과 공급망을 집중화하고 소수 대도시 지역에 소수의 기업만을 이롭게 하고, 지구의 나머지 지역은 원료

공급지로 활용하거나, 제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와 오염된 배후지의 '개발 도상국'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및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따라서, 분노의 포퓰리즘 정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곳에서의 새로운 해결책은 사회 경제적 혁신, 더 많은 포용,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다 - 누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더 많은 실리콘 밸리의 유니콘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곳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사람들, 즉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다양하고 탄력적인 지역 사회의 부를 축적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지역 및 지역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가'가 문화적 요소라면, 이러한 유형의 지역 및 지역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프로세스를 문화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관계와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에서 문화를 만들고, 공공 장소에서 새로운 행동을 모델링하므로, 문화적 변화와 재창조 과정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스토리가 공유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종류의 스토리가 필요한가?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고,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기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커뮤니티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스토리; 시도, 실패, 재 시도, 실험 및 학습에 관한 스토리;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노력, 위험과 보상의 공유에 관한 스토리; 활동가이면서, 커뮤니티 조직가, 영속 농업인, 그리고 자원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스토리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사람들이 행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연대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역 사회 이벤트 및 모임에서 이러한 스토리들이 구체화되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많은 예가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위한 모임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 다른 곳의 긍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영화 상영;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또는 벤처 사업으로 공동 개발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hackathon (끝장 토론)' 이벤트; 잠재적 기업가,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 멘토, 중개인, 추진가 및 후원자를 연결하는 이벤트. 이 모든 것들은 세계 곳곳의 풍부한 시민들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 재건 과정은 '투자자'와 다른 역할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지역 및 지역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술 및 경험 투자에 관한 이야기 □ 기업에 대한 멘토링, 참여 및 후원; 지역 사회가 원하는 경제적 관계에 참여하는 것, 즉 참여에 관한 스토리를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적 모임은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플랫폼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 조직가는 전자 메일 목록과 뉴스 레터, 소셜 미디어 및 일반 미디어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까지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와 활발한 소통,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와 관계를 형성한 네트워크로 인해, 무언가 가능하다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이 뒤따를 때,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가 명확해 진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 이런 종류의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동원.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과 새로운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재정적 (또는 기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지역 사회가 빈곤으로 정부 목록에 올라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교육 수준이 낮고, 좋은 음식, 육아, 교통 및 저렴한 주택 등이 부족하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자산 기반 지역 사회 개발 실무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산과 기술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투자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곳의 경우, 광범위한 비즈니스 경험과 약간의 추가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는 이러한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에 있는 기술과 자산이 무엇이든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종자 자본(Seed capital)은 신생 기업을 위한 중요한 유형의 투입물이며, 경험있는 멘토의 기술과 조언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역 은행이나 협동조합 은행이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지역 기업이 자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지역 투자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벽을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기회와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역할을 테스트하며, 사회적, 재정적 '자본'을 모으고 조직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이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새로운 기업가 문화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포함된다. 기술 공유 워크숍, 공식적인 워크숍,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멘토링 관계, 투자자 클럽 및 투자자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커톤(hackathons: 끝장 토론), '**Detroit Soups**', **Local Entrepreneur Forums** 및 기타 이벤트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기술, 경험, 자금 (또는 기타 자산) 투자에 기초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적인 관계 형성의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등 공식적인 금융 관계에 대한 법적 모델이 존재하기도 한다. CDFI는 지역 재정 자원을 모아서, 지역 기업에 재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투입은 문화적 변화를 강화하고, 진취적인 기업 생태계에 기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역 기업가 및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아마도, 관계와 근접성

때문에 지역 투자자들은 위험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호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자본'이다.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 투자자의 활동과 역할이 정상화될 것이다.

지역에 투자된 재정적 및 사회적 자본이 지역 및 지역 경제를 변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요한 단계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역의 지원을 받는 지역 프로젝트는 (필요할 경우) 지역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진취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술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에 소멸할 경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장기적인 재생 시스템을 확보하려면, 지역 기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액세스 포인트와 통로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용어를 '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는 생물체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다른 생물체와의 상호 의존성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에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통로가 있다. 황량한 환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풍부한 생태계는 '변화 지향적 기업'('transition-oriented enterprises')인 창업하고, 필요한 자원에 액세스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통로가 많이 있다. 다시 한번 실리콘 벨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곳은 엔젤 투자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벤처 캐피탈리스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 및 바, 인큐베이터, 엘셀러레이터, 공동 작업 공간, 정기적인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대학교, 은행 등을 신생 벤처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 기관 및 공간이 가득 찬 풍부한 생태계이다. 이러한 구조, 기관 및 공간의 경우, 기업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기업 프로세스를 재생성하고, 문화를 재현하며 경제적 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Hackathons(끝장 토론), 프로젝트의 밤, **Local Entrepreneur Forums** 등의 이벤트를 신뢰성있게 정기적으로 개최할 경우, 이것들은 로컬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제도와 공간이 된다. 시민 조직가는 이러한 유형의 이벤트를 기업가 또는 로컬 기업 네트워크 구성,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또는 근처의 비즈니스 지원 제공업체 또는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 개발 등 야심 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더욱 야심 찬 프로젝트 - 예를 들어, 지역 협의체 또는 앵커 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공동 작업 허브 및 인큐베이터를 개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많은 요소가 이미 구축되었을 수 있지만, 이들 요소들을 다른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력과 가시성 및 인적 관계가 부족하다. 실제로,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가 일단 시작될 경우, 적극적인 시민들은 지방 정부 및 대학의 주요 인물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많은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 생태계'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리콘 밸리와 다른 장소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많은 논문들이 작성되었으며, 기술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이들 요소에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문화적 측면과 가용성뿐 아니라, 공동 작업 허브 및 인큐베이터, 만날 수 있는 이벤트 및 공간, 지방 및 주 정부의 지원 정책, 기업가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대학의 혁신 지원, 앵커 기관의 지원, 교차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이들 요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수만 곳을 전술한 이벤트, 공동 작업 허브와 창업 보육 센터, 기존 지역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융합” 네트워크의 구축. 무엇보다도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유형의 경제적 변화를 위해, 많은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 신 재생 에너지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동질적인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식 (또는 비공식) 계층적 (또는 수평적) 대면 이벤트 (또는 온라인 플랫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식량 주권, 저렴한 주택, 자연적인 건물, 충격 투자 등 '신 경제'의 많은 영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균질한 네트워크와 작업 흐름은 초기적인 움직임を示나타낸다. 하지만 '신 경제'의 다양한 업무 흐름 사이에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강력하고 일관된 움직임이나 혁신이 확산되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보다 나은 지역 및 지역 경제로 전환하고 싶다면, 우리는 부문적으로만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 우리는 조각난 섬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 흐름을 연결할 경우, 가능성, 새로운 동맹 및 공동 작업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차 혁신이 출현하고 퍼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 경우, 전열이 정비된 운동과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전 지역을 망라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 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하며, 기업 문화의 발전,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동원 및 지역 내 다양한 구역의 '진취적인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Totnes 및 기타 지역에서의 경험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 및 지역 경제 전환을 위한 시민 주도적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발 전략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개념적인 지도를 제공하며, 변화 전문가가 새로운 주체, 관계 및 모델이 출현하고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Totnes에서의 우리의 접근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시민 주도형 이니셔티브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한다.

지난 7 년 동안 Totnes REconomy 프로젝트의 작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유형의 이벤트, 즉 영화, 협상,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운영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프로젝트인 지역 경제 청사진(Local Economic Blueprint), REconomy 센터, 지역 기업가 포럼 및 데본 컨버전스(Devon Convergence)를 통해 주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지역 경제 청사진(Local Economic Blueprint)은 지방 정부와 다른 지역 사회 리더들을 포함하는 지역 경제 평가 운동이었으며, 지역 소유권, 생산 및 책임에 대한 경제적 사례를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 그룹에게 신뢰를 주었고, '토양 준비'를 도왔다. 또한, 지역 협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결국 공동 작업 및 인큐베이션 센터인 REconomy Center에서 사무실 공간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REconomy 센터는 5 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약 100 명의 정회원이 있다.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자체 관리 모델인 '능력 범위 내에서 지불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REconomy 센터 회원 및 우리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은 비즈니스 계획부터 개인적 복원성에 이르는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회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몇몇은 지역 기업가 포럼 (Local Entrepreneur Forum)에 참여해 오고 있다.

Local Entrepreneur Forum은 7 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150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자자'로 활동하여 약 £ 100,000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31 개 기업에 £ 30,000 상당의 비 재무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자금을 유치하였다. 이 기업들 중에는 농장 및 식품 생산자, 에너지 기술 회사, 양조장, 지속 가능한 제재소 및 저렴한 주택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 소비자에게 '수입 대체품'을 제공하고, 일부는 시장 밖에서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지 공급자와 협력하여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때로는 프로젝트 관련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연례 행사에는 83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8,500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지난 2 년 동안 우리는 Forum의 일환으로 hackathon을 운영하여, 작년에 발표한 10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Devon Convergence는 우리 지역에서 지난 4 년간 운영해온 협업 네트워크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의 목표는 활동을 연계하고, 효과를 증폭 시키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다른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주체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이벤트로 인해, 지역 협력 은행 프로젝트와 새로운 현지화 경제(new economic relocalisation)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다양한 다른 접근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Cooperation Jackson 또는 Cooperativa Integral Catalana 등 협력 및 연대 경제; “클리블랜드 모델(Cleveland Model)” 과 “프레스턴 모델 (Preston Model)” 등의 커뮤니티 부의 축적당; 역성장(Degrowth) 활동;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및 공유 경제; 그리고 시민 주도의 경제 전환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들을 위한 전략 개발을 가이드 하는 통합적인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의 파괴적인 방식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 이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측면에서 출현할 수도 있다.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생태 학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을 향한 모든 효과적인 노력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지원적일수록 변화가 보다 빠르고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음 단계만 수행하고, 인접한 가능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이 지구의 시민이며, 엄청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 의지를 행사해야 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5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
- 지역경제를 재활성화 및 공공의참여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으로 시작된 마을 리더의 성장과정 김성국
 - 지역순환경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임경수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지역경제 재창조를 위한 사례 공유·의견수렴 및 분석·대안제시를 내용으로 진행하고 먼저 해외사례와 전주시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대표 및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발표를 청취한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3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의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가게 된다. 3개 소그룹 토의는 각각의 진행자가 진행하며, 앞선 발제내용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05	5'	개회	개회인사, 발제 · 소그룹토론진행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05 ~ 14:20	15'	발제 1	해외사례발표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14:20 ~ 14:40	20'	발제 2	전주시 도시재생 사례발표1 김성국 마을공동체 천사길 사람들 대표
14:40 ~ 15:00	20'	발제 3	전주시 도시재생 사례발표2 임경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15:00 ~ 16:00	60'	소그룹토론	진행자 :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진행자 : 고은설 별의별 대표 진행자 : 조 선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팀장
16:00 ~ 16:10	10'	휴식	
16:10 ~ 17:00	50'	결과공유	소그룹토론 결과공유 및 자유토론

좌장 허문경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퍼실러테이터 문요한 (전주시속가능협의회 연구원)

최현우 (팔복새뜰마을 현장지원센터)

지역의 미래 : 경제 재활성화 및 공공의 참여

에다히로 준코
(Edahiro Junko)

지역 도시, 소도시 및 마을의 재생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에는 큰 도시 및 작은 마을을 포함해 1800개의 지방자치체가 국가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은 인구 30,000명 이하의 소도시 및 마을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총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도시 및 마을의 총 영토는 국가 전체의 약 48%에 해당합니다. 즉, 8%의 인구가 일본 영토의 거의 50%를 보호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역 소도시 및 마을의 재생을 통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이들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소도시 및 마을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프로세스에 지역주민이 관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주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경청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도시재생 계획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주민과 지역단체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공의 관여를 위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 동안 일본의 소도시들을 도우며 쌓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만들고 일반화하는데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가 만든 절차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접근법을 통해 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상호 연결된 인자들의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와 계획을 다같이 세워서 바람직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창조하거나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피드백 루프는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획시행 확인절차를 도입해 지역주민을 공유된 비전을 향해 움직이도록 합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연구를 공유해 이러한 절차의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전주의 실제 사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시재생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다른 중요한 관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으로 시작된 마을 리더의 성장과정

김성국

마을공동체 천사길사람들 대표

1. 도시재생이란 의미를 배우며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마을이란 공간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고, 더 나은 공간의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서 그동안 함께 살아 왔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며, 마을의 인구 감소와 생활환경의 변화가 시작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낙후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개발’ 이 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동안 함께 사용해 왔던 공간을 모두 밀어내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들마저도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마을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도시재생’ 이라는 의미를 배우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로, 공동체활동과 마을 리더의 역할을 시작 하게 되었다.

2. 진심은 이기심을 넘을 수 있다.

2011년이 다 지나갈 무렵 우리 마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라는 연구 기관이 만들어 지면서, 마을 주민으로 참여해서, 학습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보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다. 과거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보고 자랐던 나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을 찾았지만 참여율은 저조 하였으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 생각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행정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들과 마을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마을주민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일부터 시작 하였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또한 마을재생학교를 운영 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꽤 많은 사람이 모여지면서 재미있는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내집앞 골목길 페인트 칠하기, 옆 골목길도 함께 페인트 칠하기 등의 마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시켰다. 이런 활동이 우리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결국 우리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득 하였다.

3. 재미있는 공동체 만들기

우리 마을에는 “얼굴없는 천사” 라는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가 있다. 얼굴없는 천사께서는 지난 18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마을에 익명으로 5억 5천여만원을 기부 하셨으며 그 기부는 4천5백여명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달 되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천사의 길’ 을 만들고 ‘천사의 공방’ ‘천사의 텃밭’ ‘천사의 쉼터’ 와 ‘천사길사람들’ 이라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등 천사의 스토리와 마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하였다. 또한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천연염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하는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동체’ 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다.

4.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동에서 마을 리더의 역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과 ‘공동체’ 가 부각 되고 많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과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마을 주민을 참여 시키고 뜻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마을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진다. 마을 리더는 외롭고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마을사업은 기업이나 행정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유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활동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긴시간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장해야 만이 튼튼한 사업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마을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 진다.

5. 기적 같은 공동체 활동가로의 위촉

지난 7년 동안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은 없다 오직 내가 살아왔으며 앞으로 살아갈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항상 나의 사생활과 공적인 봉사활동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전주시에서는 상당한 시간의 교육 과정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가를 위촉 하였다. 이제 공동체 활동가로서 또한 마을 리더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면서 마을 사업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의미있는 정책인것 같다.

6. 마을 리더의 꿈과 신념.

지난 7년을 돌아 보니 도시 재생이나 마을공동체 라는 의미는 우리 마을 이라는 공간에서, 또한 소소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 스럽게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마을을 가꾸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꿈과 신념을 가진 마을 리더가 되기를 다짐하여 봅니다.

지역순환경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임경수

전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한국의 지역개발은 외부에서 유입하는 화폐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인적, 물적 자본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외부의 투자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의존적인 지역개발은 동서갈등의 지역 간 불균형도 일으켰지만 지역개발의 결과로 지역으로 들어온 화폐는 결국 다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2. 지역경제의 단면

가. 서천군 서천읍의 자전거 가게

완주로 이사 오기 전에 여러 작은 도시에서 살았다. 춘천에 살 때이다. 큰 아이가 자전거를 탈 나이가 되어 자전거를 사야하는데 동네 자전거 가게의 자전거보다 대형마트의 자전거가 더쌌다. 하지만 동네 자전거 가게에 손님이 북적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많은 날 허공만 쳐다보는 자전거 가게의 할아버지 모습이 눈에 밟혀 비싸지만 그 자전거를 샀다. 그 자전거와 함께 충남 서천군으로 이사했다. 큰 아이는 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고 어느 날 자전거 타이어의 코크가 빠져 동네자전거 가게에 수리를 하러갔다. 수리하는 아저씨는 내내 투덜거렸다. 자신의 가게에는 자전거 사러 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돈이 되지 않는 이런 수리만 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서천읍과 군산의 대형마트는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싼 가격에 대형마트에서 자전거를 사지만 그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차에 싣고 군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자전거를 팔고 자전거를 고치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였던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그렇게 위태로워졌다.

나. 전주 한옥마을의 체험한복

전주의 한옥마을은 연간 천 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또한 하루 평균 3억 3800만원, 연간 1,234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발표자료). 전주 한옥마을에서 성업 중인 가게 중에 하나는 한복대여점이다. 2017년 말, 내가 일하는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200여개가 넘는 가게가 있고 대여점 사장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수요가 충분해서 추가적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한복대여점의 한복은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이 대여용 한복은 시간 당 만 원 정도의 요금으로 빌려주고 20~30회 정도 대여하면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저렴해야 하는 이 한복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만든다. 남부시장에서 한복을 만드는 작은 가게 할머니들에게 이 대여용 한복을 만들 수 없겠느냐고 여쭙어봤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만들지 못한다 하신다. 한옥마을에서 빌려주는 옷은 고무줄이 들어간 모양만 한복인 국적 없는 옷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관광객이 전주에서 쓴 돈은 외부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지켜왔던 전주의 자존심도 사라졌다.

3.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전주시 중심지였던 중앙동, 다가동 일대 1,43km²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 및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내 4개 지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목표 아래 시민들이 주도하여 문화예술과 상업분야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쇠퇴한 지역에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활성화된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를 찾는 탐방객들이 모든 지역을 찾아가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전라감영길 특성화 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라감영길의 비전을 정하고 도로의 디자인에 속의과정으로 참여하고 이후 주민자발적 활동을 촉진
- ②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감영과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방향에 적합하도록 전라감영길을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도로로 조성
- ③ 전통 및 문화와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주 협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물의 외관 정비를 지원
- ④ 인근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행안부의 사회혁신사업으로 조성

전라감영길 특성화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과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4. 지역순환경제 측면에서의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전주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도심 내에서의 주민활동의 활성화로 지역 내부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창업이 촉진되며 이러한 활동이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순환하는 큰 열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문들이 있다.

첫째, 큰 열개가 제대로 맞물린 경우 순환경제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구체적인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후 그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대상 지역 내에서의 업종별 현황과 전망, 잠재력 있는 업종의 전후방 연계 업종 분석 등을 통해 순환경제의 비어 있는 고리를 찾아내고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의 밑바탕에 순환경제의 큰 틀 안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고 있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전주시 차원의 순환을 고려한 지역경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특정한 도시재생 구역은 구역 내 순환경제를 완결할 수 없는 제한적인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전주시 전체의 순환적 경제구조 안에서 도시재생지역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성장과 공간 확장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폐기하고 이러한 지역자립과 순환경제를 뒷받침하는 도시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지 임대료 상승을 막는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규모 자본의 유출은 주로 토지와 금융의 외부 소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는 지역경제 순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협동조합 금융과 시민자산화 등의 노력을 통해 토지와 금융을 지역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5. 나가며

여전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고령화, 제조업의 쇠퇴 등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성장’ 패러다임 속에 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개인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화폐적 행복’으로 연약한 다수를 착각시킨다. 이 착각은 또한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다른 지역에 가야할 돈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해 만들어 지역이 잘 살수 있다는 집단적 착시를 일으킨다. 대한민국의 조그만 중소도시가 이러한 착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며 순환적인 경제를 만들어가는 일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전주라는 작은 도시의 노력이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중앙정부의 정책도 전환시켜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 주는 그런 꿈을 꾸어본다.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6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 지역식량 계획과 팔시스템의 역할 카토 카오리 (Kato Kaori)
 - 「전주푸드2025」 플랜 추진 전략 강성욱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용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자·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지역식량 계획과 팔시스템의 역할 카토 카오리 (Kato Kaori) palsystem 제품기획 부장
14:40 ~ 15:10	30'	발제 2	전주푸드2025 플랜 추진 전략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종합토론	박수영 원주친환경농업연합회 총무 김현곤 국회 김현권 의원 보좌관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장
16:30 ~ 17:40	7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팔시스템 대표 김양우 전주푸드생산자회장 장순철 학교급식협의회회장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팔시스템의 생산자-소비자 간 협업

카토 카오리
(Kato Kaori)

생산자-소비자 협의체(PCC)의 활동 소개

다음은 팔시스템팔시스템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업 활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 농업 방식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을 발전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농법 추진을 위해 고급 유기농법을 배운다.
- 농업을 기반으로한 지역협의회를 설립하여, 활성화한다.
- 농민 간의 국제적 연대를 발전시킨다.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업, 정보 교환 및 소통을 촉진한다.

1. 생산자-소비자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팔시스템은 산초쿠(산지직송: 소통을 통한 생산자 직접 채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민으로서 함께 일함으로써, 다양한 농업 가치를 재발견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리사이클 환경 및 식량과 농업을 연결하는 풍요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한다.” 이 정의의 독특한 점은 산지직송을 단순히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팔시스템은 2005 년부터 전국 각지의 생산 지역별 지역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협의체에서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친화적이고 리사이클 지향적인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소비자들에게 잘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시스템은 농업-상업-공업 협력을 통해 농업의 6 차 산업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갖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1.1. (1) 지역사회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리사이클 체제 구축: JA 사사카미의 시도

니이가타 현의 JA (일본농업협동조합) 사사카미 회원들의 경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농사에서 나온 지푸라기로 설날장식물을 만들어 팔시스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방법으로 재배한 쌀과 유기농쌀을 생산하여, 팔시스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쌀은 연간 계약시스템에 의거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팔시스템과 다른 소비자협동조합의 공동후원으로 두부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경작지 감축정책으로 버려진 논에 콩을 심어 수확한 대두를 사용하여, 국내산 대두만으로 만들어 거품 방지제가 없는 두부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부는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생산지역은 미활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콩을 독자적으로 가공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두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2) 팔시스템-정부 커뮤니티 식량 프로그램: 쌀 학교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주식인 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팔시스템 도쿄(도쿄의 팔시스템)는 도쿄 내 초등학교에서 "Rice Class(쌀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151개 학교 10,807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며, 이 숫자는 도쿄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의 11%를 차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밥을 먹는 방법,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음식 먹는 법 등 일본의 전통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벼를 심는 것에서부터 쌀 수확 및 탈곡까지 벼 생산의 전 과정을 체험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에서 벼를 직접 재배합니다.

학생들은 벼 재배 전에 쌀에 대한 수업을 들은 후 여러 종류의 밥맛을 비교합니다. 팔시스템의 직원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회원들이 강의를 합니다. 유기농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모를 제공합니다. 농부들이 종종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데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참가학생들은 쌀 공부를 위한 공책과 도쿄의 바이오메스(산림 벌초 목재)로 만든 젓가락 등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서 도쿄의 지방정부가 식량장려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수업을 위한 장비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보육학교에서는 벼 경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팔시스템-정부 커뮤니티 식량 프로그램: 제3섹터 이니셔티브

토우지노사토 주식회사(니가타현 조에츠시 JA 에치고 조에츠 및 팔시스템 도쿄가 후원하는 제3섹터

사케양조장), 팔시스템소비자협동조합 및 팔시스템 도쿄 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팔시스템 도쿄의 대표자들은 식량 및 농업진흥을 위한 조에츠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에츠시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에츠시 및 조에츠시의 농부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농업 장려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에서의 술 제조 및 농사체험 프로그램은 팔시스템 도쿄 회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사케와 메밀국수(소바) 만드는 워크숍 진행을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4) 팔시스템-정부 커뮤니티 식량 프로그램: 농부가 직접 개설한 시장 및 식당

우리는 후지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후지사키 마을에서 후지사키 마을, JA 쓰가루 미라이 및 도키와 가금협동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은 식량교육을 위한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의 급식시간에 지역농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생산물 증대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옆 지역에서 재배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농민들이 운영하는 뷔페식당이 2년 전 조에츠시, 올해에는 후지사키마을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후지사키마을은 식당 옆에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여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2025」 플랜 추진 전략

강성욱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60여 년간의 한국 농정 : 성장, 경쟁, 효율

- 농업 근대화 : 성장의 정체(생산성, 총투입, 성장률 하락 추세)
- 시장편입 가속화 : 기계화, 전문화, 규모화(초국적 농식품 기업화)
- 환경성 악화 : 농약·화학비료 고투입 기조 유지, 공장형 축산 집약화
- 농업·농민 존립 위기 심화 : 대농 집중화, 기업화, 수직계열화
- 농촌 재생산 구조 붕괴 : 생산농가 고령화
- 지역과 사회공존 시스템 요구 : 농업소득 감소, 양극화(재촌탈농, 빈곤화) 심화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식량기본권·식량(생산)권 보장, 지역 활력화

- 반성 : 경쟁, 성장, 효율 ⇒ 관계성 회복, 상생, 지속가능성
- 전술 : 중앙집권, 설계 하달 ⇒ 지역화, 분권, 협치, 자율권 보장
- 전략 : 지역 먹거리 기반 구축 ⇒ 국가 먹거리 전략 확대
- 목표 : 농산업 육성 ⇒ 국민 삶의 질 향상(먹거리를 통한 행복추구권 실현)

♣ 전주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실태

【생산】

- 1ha 미만 경작 가족소농 비율 : 71%(우리나라 65.7%) - 전주푸드 조사 자료 2015-
- 겸업농(4,510가구) 비중 : 63%(65세 이상 고령화율 75% 상회)
- 65세 이상 농업 소득 : 6,700천원(전국 평균 11,257천원, 전북 9,850천원)

【유통】

- 대기업 유통재벌 독점 80% 이상 : 이마트(1), 홈플러스(3), 롯데마트(3), SSM(26), 편의점 등
- 전통시장, 향토마트, 지역 중·소상공인 활력 저하

【소비】

- 전주시 가계먹거리(엔겔계수) 1조원 규모 중 : 지역생산 비중 5%(500억원) 수준
- 시민 먹거리 기본권, 건강권 위협 : GMO수입 세계 2위, 풀무원 케익급식 전국 식중독 1,600명 사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전략

고발생(18.09.07)

♣ 전주푸드2025 플랜

-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지역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일자리 보장
-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 ※ 연간 5백억 원 규모에 머물고 있는 전주농업 생산액을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끌어 올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받을 권리실현 등 시민밥상과 농업,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주시 먹거리 10년 계획 선포(2015.11.17.)
 - ※ 전주푸드플랜 전주시 농정사례 확산 : 농림부 18년 9개소 시범 추진, 22년까지 100개소 확대 추진(2018)

♣ 전주푸드를 지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

- 전주시 지역 외 생산 농산물 의존 : 95% 이상
-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심각 : 80% 이상
- 농업인구 21,538명, 경작지 6,269ha 구비, 300종 이상 다품소량 생산다양성 유지
- 전주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소비자 요구 확대
- 전주시 관외 지역 간 교류 등 다양한 유통경로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
- 전주시민의 안정된 시민 식량권 보장 및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구축

♣ 전주푸드추진 방향(2018년 ~ 2020년)

- 전주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 정비
- 전주시 농산물 생산력의 복원 및 전주푸드 생산 광역화
- 전주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보장 복합형 직매장 4개소 개설 운영
- 전주시 관내 전 품목 지역산 공급 등 공공(학교)급식 공급확대 체계 구축
- 서울시 등 관외 도농상생 공급사업 확대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가단위 먹거리관련 네트워크 확대

♣ 「건강한 시민 · 지속가능한 농업 · 독립경제도시 전주」 실현

- 생산 · 유통 · 소비 재편 : 연간 2천억 원 규모 지산지소 선순환시스템 구축
- 거버넌스 : 전주푸드+사회적 경제+도시재생+지역화폐 등 다양한 테마와의 결합
- 지역먹거리 전략의 국가 전체농정 확대 : 세계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책
- 지역농업의 미래 비전 실현 : 「국민 모두의 농업」 화합 · 상생 인식 확산 기여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7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 워크숍 제이토크트 (JayTompt)
 - 지역에서 돌고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 이재환
 - 은평화폐 평화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경제 박치득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용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자·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 이재환 / 시흥시청 주무관
14:40 ~ 15:10	30'	발제 2	은평화폐 평화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경제 박치득 /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센터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20	60'	종합토론	제이톰트 (Jay Tompt) 플리머스대교수 이재민 웅지세무대교수 윤성일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대표 고은하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표
16:20 ~ 16:50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토론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50 ~ 17:0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손현주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 워크숍

제이톰트
(JayTomp)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 체제는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불평등, 민주주의 기관들의 부패 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현재 소비하는 에너지 및 자원을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마을, 도시 및 주변 지역의 커뮤니티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보다 더 큰 혁신적인 과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은 공평하고, 생태학적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며, 다양하고 탄력적인 대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분권화하여, 경제 및 정치 권력을 지역 사회와 민주주의 기관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대안 경제 체제를 원한다면, 새로운 경제 주체, 관계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명제입니다. 이러한 명제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역 및 지역 경제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 차원이며,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논리는 간단하며, 변화 및 발전 이론을 가이드 및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중 일부는 거시적 및 국가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시민들 역시 투표소에 가는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현재 시스템의 부정적인 결과는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소와 자원의 소비 규모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다음 수십 년 동안 80 % 정도), 그 해법은 커뮤니티 및 지역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커뮤니티, 마을, 도시, 지역들이 혁신적인 경제 전환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 4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 전환 지향적 기업가 문화를 추진한다-우리가 새로운 주체, 관계 및 모델을 원할 경우, 협동조합, 연대 및 공동 프로젝트, 앵커 기관, peer-to-peer, 사회적 기업, 개인기업, 파트너십 등 새로운 기업과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업 목표가 생계 유지이거나 글로벌 공급망과의 분리하려는 의도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시스템 내, 외부에 있는 지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가 정신, 투자, “인큐베이터” 뿐 아니라, 이들 프로세스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과 스토리를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 동원-어느 곳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 노하우 및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전환을 위한 이들 자산의 동원은 전체 목표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시작하기, 지역 사회의 참여 유도, 지역사회 부의 축적, 지역의 책임성 제고, 재단 및 정부 등 다른 소스에서 더 많은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하고, 재생적인 '적극적 생태계' 구축-전환 지향 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공동 작업 및 인큐베이션 공간, 교육 프로그램, 은행 및 금융 기관 등의 시스템적인 지원을 받고 출발합니다. 이러한 공간, 기관 및 구조의 상호 연결된 지원은 새로운 벤처 창업을 위해, 유형적이며 유용한 경로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전환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시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여건을 창출합니다.

- 지역의 다양한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된 “융합 네트워크” 구축-대안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수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사람, 자원 및 아이디어의 연결, 혁신 출현 및 확산, 그리고 활동 전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기업가 또는 지역 시민단체로 활동하거나, NGO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을 위한 개발 전략 및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개념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활동할 경우, 새로운 단일 기업 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공유, 연대 경제, 역성장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활동가 및 기업가들에게는 '상류 영역(upstream)'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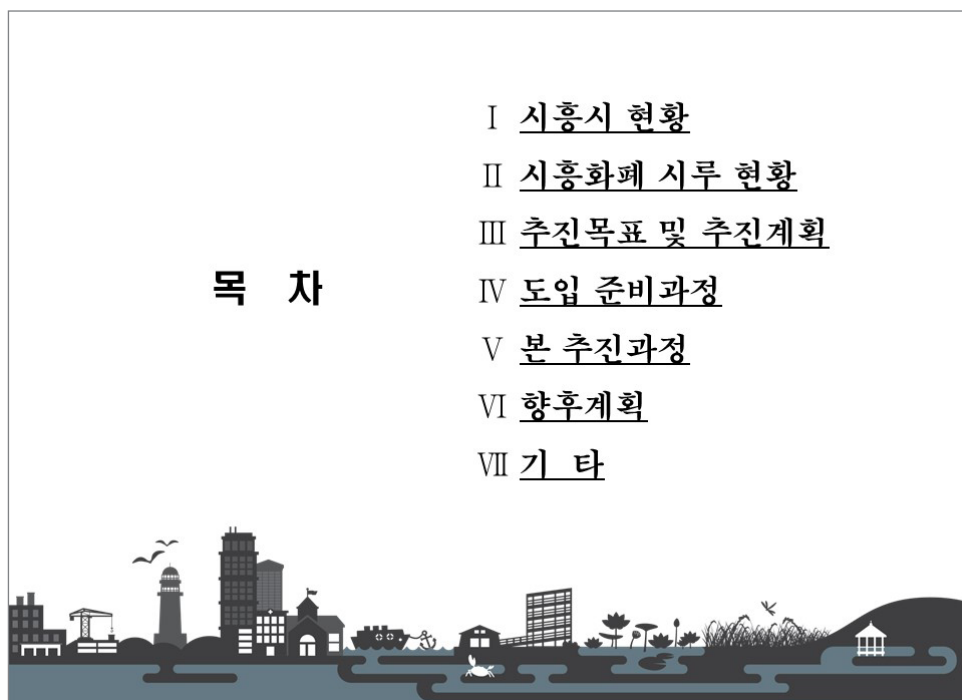
지역 기업가 포럼, Project Design Hackathon, REconomy Center, Local Economic Blueprint 및 Devon Convergence를 발전시킨 Totnes REconomy 프로젝트 등 이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성공한 이니셔티브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Calderdale Bootstrap, Berkshares, Boston Impact Initiative, Cooperation Jackson, Cooperativa Integral Catalana 및 'The Preston Model' 등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맞는 프로젝트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이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의와 Totnes에서의 경험 및 여러 다른 상황을 융합시

킬 것입니다. 노하우 전수를 위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이 이 접근 방식을 자신의 프로젝트 및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시연합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유럽과 미주지역 약 15개국의 다양한 지역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조직가 및 변화 주체들의 네트워크인 **international REconomy Community of Practice**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에서 돌고 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

이재환
시흥시청 주무관



I 시흥시 현황

- √ 인 구 : 43만명
- √ 행정구역 : 17개동
- √ 소상공인 : 1만7천여개 업체



II 시흥화폐 시루 현황

- √ 시행 근거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5.)
- √ 판매 개시 : 2018. 9. 17.
- √ 할 인 율 : 5% (출시기념, 명절 등 특별기간 10%)
- √ 지류 권종 : 1천, 5천, 1만원 권 (총 3종, 모바일 병행추진)
- √ 구매/환금 : 관내 31개 농협 전 지점 (구매수수료 0.7%, 환금수수료 0.8%)
- √ 사 용 처 : 시흥시 사업자등록 소상공/자영업체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 2018. 9.10. 기준 3,500여개 업체 접수



Ⅲ 추진목표 및 추진계획

연도별	목 표	추진 실적 및 계획	예 산
2018년	4/4분기 20억원 규모 유통	관련 조례 제정 및 도입 기반 준비	3억원
2019년~	연간 200억원 유통/모바일 시루 도입	각종 복지비 및 수당·포상 적용 모색	13억원
2020년~	공동체 품앗이형 시루 플랫폼 도입	지역 내 유희자원의 거래 적용 추진	

√ 시흥시 380억원 유통시 170억원 역외소비 감소효과, 391명 취업유발 효과발생 (한국산업기술대 연구보고서, 2018)

√ 역내소비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성 강화(사회적자본 기반형성)



Ⅳ 도입 준비과정

○ 도입모색기 (2016. 10.~2017. 2.)

√ 민관연구모임 (총 4회) : 수원, 대전 사례 연구 및 관련자료 학습

√ 시민강좌 개최 (총 3회) : 마포, 대전 초빙강좌 및 관련자료 학습

*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 모델 논의



[민관연구모임]



[시민강좌]



IV 도입 준비과정

○ 민관협력 추진기 (2017. 4.~2018. 5.)

√ ‘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 구성(상인회, 시민단체 등 24명 위원, 2017. 4.)

√ 시민설문조사(1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상시, 총 50여회)

* 487명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 ‘도입 찬성’



[시민설문조사]



[상인회 설명회]



IV 도입 준비과정

√ 지역화폐 명칭 및 디자인 시민공모전(2017. 8.)

* 선정명 ‘시루’ : 시흥시 ‘시’ + 뭍을 ‘루’ (累) = “시흥 경제공동체”

* 선정 디자인

[공모포스터]



[선정도안]



IV 도입 준비과정

√ 제12회 시흥갯골축제 시범운용(2017. 9.)



[축제 판매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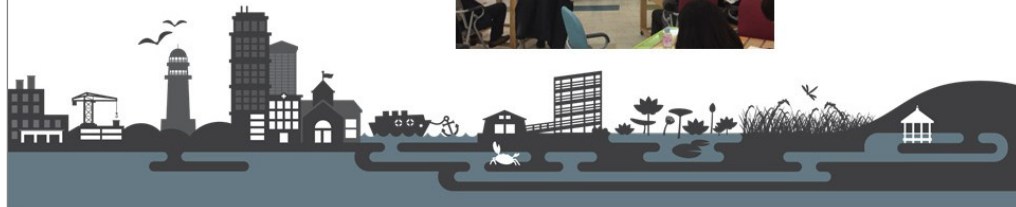


[사용모습]

√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
열린토론회(2017. 12.)



[토론회 모습]



V 본 추진과정

√ 시흥형 지역화폐 모바일 시스템 구축 연구의뢰(한국산업기술대, 2017. 12.)

√ 시흥시-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 TFT 구성 및 회의(총 14회, ~2018.2.)

√ 시흥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 개설(수강생 30명, 2018. 4.)



[민관 TF 회의 모습]



[지역화폐 학교 개강식]



V 본 추진과정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 5. 3.)
 *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시흥화폐발행위원회' 구성 명기

√ 가맹점 신청 접수 시작(2018. 6. 26.)
 * 통장 조직 협력 등 민관이 함께 한 가맹점 모집 및 신청접수



[시의회 상임위 회의]



[1호 가맹점 현판식]



V 본 추진과정

√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농협, 2018. 7. 27.)

√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MOU 체결(한국조폐공사, 2018. 7. 27.)

√ 민관 협력 시민 홍보(계속) / 도입 준비를 위한 행정 내 TFT 구성(5인)



[시흥시-조폐공사-농협 협약식]



[맘카페 플리마켓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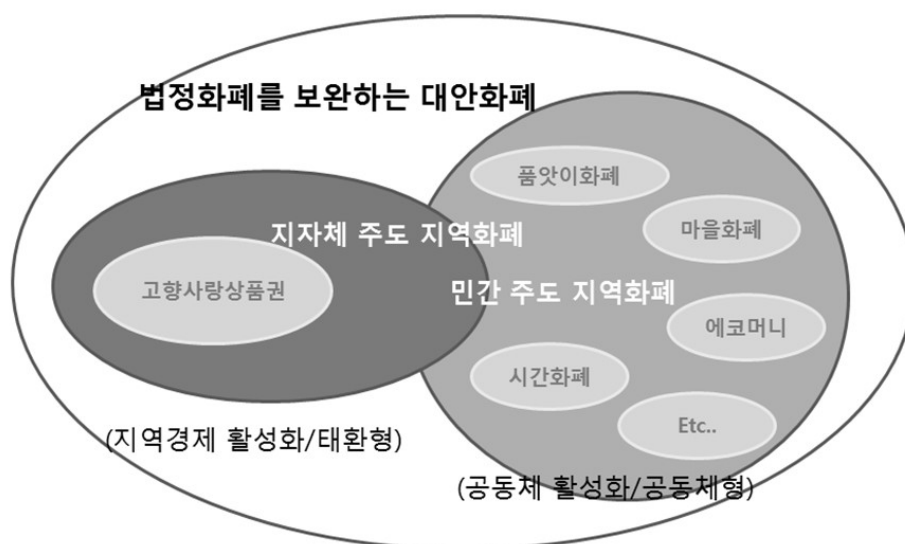


VI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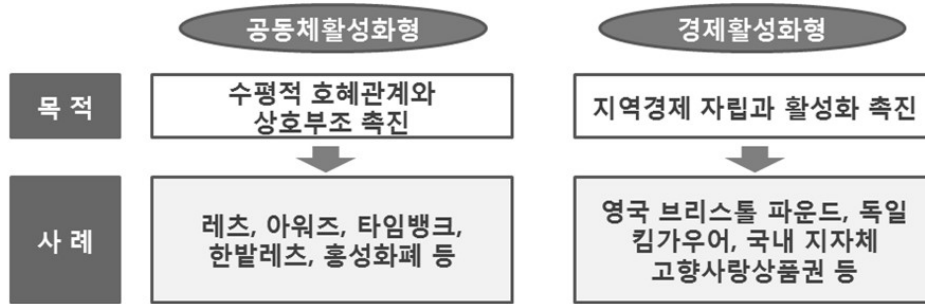
-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가맹점 5,000개 업체 확보/유지
- √ 구매 및 환급 시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지역화폐 추가 도입(2019. 2.)
- √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의 규모화’
 - 복지정책과 지역화폐의 연계 검토(청년배당 등 정책발행)
 - 공무원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및 포상 시루 전환지급 추진(공공구매)
 -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한 1부서 1과제 발굴 진행
- √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운영구조 마련
 - 민관협력 기반 ‘시흥화폐발행위원회’ 운영 정착
 - 담당부서 및 인력 확보(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신설 예정)



√ 지역화폐의 유형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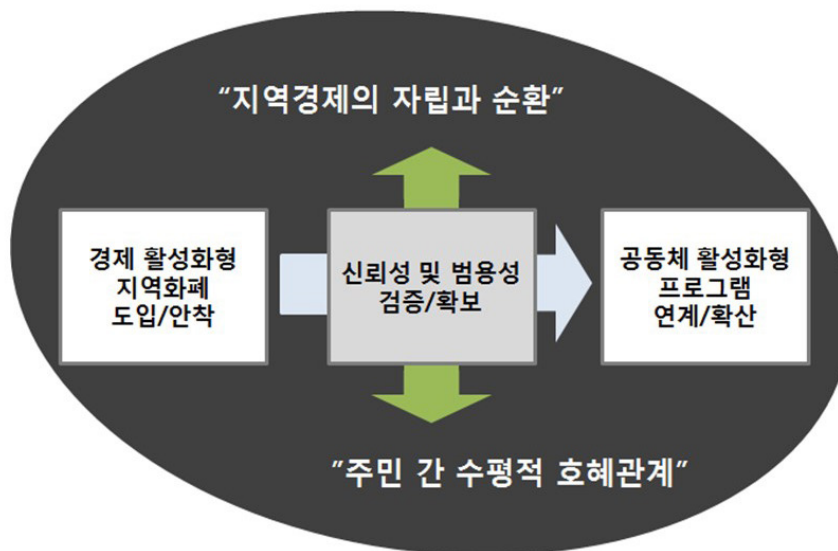


√ 지역화폐의 유형과 분류



-두 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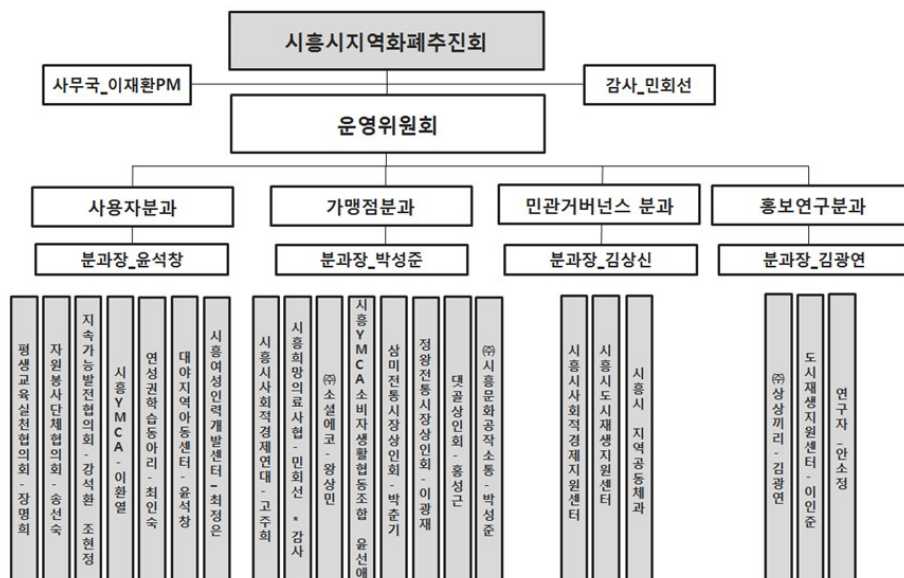
√ 시흥형 지역화폐 확산 방향



√ 강원도 3개 지역 경제 효과

지역	형태	효과 분석
양구군	내부형	지역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 지역주민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이용해 소비대체 효과가 가장 높음. 상품권 유통량은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0.83%에 불과하나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는 2.13% 추가 상승 효과
춘천시	외부형	외부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판매, 외지인의 지역 내 추가 매출효과가 가장 크며, 상품권 판매액('17. 8월말 6억원) 대비 지역 내 지출이 3.75배(22.8억원)
화천군	통합형	주민 및 외지인 모두에게 판매, 郡의 투자예산(0.44억원)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6.98억원)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2017년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 노력



√ 2017년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 노력

시민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측정 모형

- i. 조사 대상 : 시흥시 거주 또는 근무자(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군별)
- ii. 표본 크기 및 추출방법 : 유효 표본 수 487명 / 무작위 추출
- iii. 조사 방법 : 이메일 설문 및 대면 조사
- iv. 조사 일자 : 2017년 6월 2일~6월 26일(24일간)

2) 결과 요약

- **[지역화폐 인지도]** 선생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34.1%) ② 잘 모른다(65.9%)

- **[지역화폐 활용 분야]** 우리 지역 시흥시에서 지역화폐가 도입된다면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 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36.4%) ②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11.3%)
- ③ 사회적기업 및 창업 기업(7.2%) ④ 지역 생산 농수산물 직거래(11.5%)
- ⑤ 주민 공동체 생산 재화 및 서비스(7.5%)
- ⑥ 공영주차장 등 공공서비스(11.7%) ⑦ 지역 축제·행사 및 프리마켓(13.6%)
- ⑧ 기타(0.8%)

√ 2017년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 노력

- **[지역화폐 성공조건]** 우리 지역 시흥시에서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 ①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게(가맹점)의 안정적 확보(40.4%)
- ② 지역화폐를 쓰는 시민(사용자)의 폭 넓은 확대(24.9%)
- ③ 시민사회(민)과 시흥시(관) 간 협력과 지원 강화(18.5%)
- ④ 시행기구(추진회 등)의 적극적 노력 및 투명한 운영(15.1%)
- ⑤ 기타(1.2%)

- **[지역화폐 사용 여부]**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 시흥시에서 지역화폐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사용하겠다(32.9%) ② 필요하면 사용하겠다(57.6%)
- ③ 사용하지 않겠다(2.8%) ④ 잘 모르겠다(6.6%)

은평화폐 평화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경제

박치득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센터장

‘평화’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경제

2018. 11.

은평공동체화폐추진단

추진 목적

은평 공동체 화폐 ‘평화’



지역 내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 토대 마련
경제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일상적 공동체 체감
지역내 사회적경제 확대 & 상호부조 → 호혜시장 구축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계선사항



은평 공동체화페 '평화' 역할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경제공동체의 일상적 체감을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의 촉진을 통해
상품·서비스·재능 교환의 매개 기능
 → 소통과 문화가 있는 공동체경제 기반 마련

추진경과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 2017 은평 공동체화페 '평화' 1차 시범사업

4 ~ 6월 : 지역화페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업안 도출

7/25 : 은평공동체화페 시범사업 설명회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돈'

8/9 :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주축으로 은평공동체화페추진단 구성
 추진주체간 민간 차원 기금 조성

9/11 ~ 9/13 : 은평공동체화페 네이밍 1차&2차 설문 조사 → 네이밍 '평화' 확정

9/13 ~ 9/29 : 평화회원 & 평화가게 홍보물 제작 사업 홍보 (1차 시범사업 준비)

10/1 ~ 12/31 : 은평 공동체화페 '평화' 1차 시범사업 진행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추진경과

➡ 2018 은평 공동체화폐 ‘평화’ 2차 시범사업

1~2월 : 1차사업 결과평가 및 2차사업 실시안 설계

3월 : 은평구 마을포털 및 마을화폐 시스템 - 계약 체결

4월 : 시스템 개발 설계 및 콘텐츠 업로드

- 평화가게 가게 정보 업로드(가게 정보 및 이미지 등)
- 사용자 편의성 구현 및 시스템 디자인 구성 등

4/20 : ‘평화’ 모바일 앱 & 포털 사이트 (www.eppay.kr) 오픈

5월 : 평화회원 & 평화가게 홍보물 제작 사업 홍보 (2차 시범사업준비)

5/21 ~ 7/31 : 은평 공동체화폐 ‘평화’ 2차 시범사업 진행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현재

➡ 은평 공동체화폐 ‘평화’ 3차 시범사업 진행중 (2018. 10. 1 ~ 12. 31)

기본 운영방안은 2차 시범사업과 동일

- 시스템 불안정 최소화(요인 개선) 및 편의 소구점 도출
-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상호거래 모색
- 우수 품질의 가맹점 확대(집중 거점 지역 설정) 및 사용 동인(할인) 설계
- 지속가능을 위한 운영자금 조성 여부 파악(매출수수료 1%)
- 기간: 10. 1 ~ 12.31 (3개월 간)

1차 시범사업 운영체계

1차 시범사업

수첩 수기 거래 / 5% 인센티브 쿠폰 지급
평화회원 개인별 구매 금액 총액 30만 평화 / 최대 15,000 평화 쿠폰 지급



사업결과

➡ 은평 공동체화페 '평화' 1차 & 2차 & 3차 시범사업 결과

구분	1차	2차	3차
진행기간	2017.10.1~12.31 (3개월)	2018.5.21~7.31 (약 2개월)	2018.10.1~12.31 (3개월)
운영체계	수첩 수기	모바일 앱	모바일 앱
평화회원	총 114명	총 121명	총 130명 내외
평화가게	총 28곳	총 37곳	총 45곳
거래액	15,686천 평화	7,994천 평화	?
거래횟수	총 333회 (1일 평균 3건)	총 474회 (1일 평균 7건)	?
운영방법	—	선불 개념 (공동기금통장에 선입금 + 앱 설치 + '평화' 환전)	선불 개념 (공동기금통장에 선입금 + 앱 설치 + '평화' 환전)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추진성과

1. 공동체화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

시범사업 참여한 평화회원 & 평화가게 수, 거래횟수 증가 (1차 < 2차 < 3차)

2. 공동체화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 주체 형성

은평공동체화페추진단 (8개 조직)

-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단법인 은평상상, 은평시민협력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물푸레 북카페

민간 차원 기금 조성

- 1차 2차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비용을 민간 중심으로 확보
- 은평공동체화페추진단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화페 초도 기금 마련 (총 2,750,000원)

추진목적
<평화> 역할
추진경과
운영체계
사업결과
추진성과
개선사항



추진성과

3. '평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조성

평화 사용 고정 회원 확보 (총 121명)

- 은평공동체화페추진단 종사자 중심 + 일반주민

평화가게 확보 (총 45곳)

< 사회적경제조직 : 21곳 >

- 금자동이, 물빛마을 청국장, 물푸레북카페, 반짝반짝사진방, 살림의원, 살림치과, 건강혁신의원, 운동센터다짐, 소통이룸협동조합, 아빠맘두부, 협동조합좋은이웃, 은평두레생협(구산점, 응암점, 진관점, 불광산타점), 모두의카페, 협동상회, 마을무지개, 36.5스토어, 바늘한땀, 품친베이커리

< 지역커뮤니티 공간 : 8곳 >

- 마을엔, 밥풀꽃, 북앤카페쿠아레, 마을예술장작소, 책방비엔, 쿠아레비, 즐거운반딧불이, 그래픽서점 프레드릭

< 청년 점포 : 7곳 >

- 녹음커피바, 레인보우트리, 바보공방, 더메이커스, 초롱문구, 삼봉바, 혁신파크 창문카페

< 지역소상공인 : 9곳 >

- 불광문고, 원미맛집, 신안경, 꽃바다, 유빈스베이커리, 은평치킨, 가이오국수, 불광대장간, 아빠맘순두부



문제점 & 보완점

➤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

-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안정화 제고
- 환전, 구매, 결제 기능의 통합 필요
- '평화' 운영 재원 마련 (지속성 확보)
- 상품, 서비스 퀄리티 & 접근성 높은 평화가게 가맹점의 발굴
- 충성도 높은 평화회원 유지와 확산
- 은평 공동체화페 '평화'만의 정체성 명확화
→ 제로페이 및 자치구 중심의 지역화폐와 다른 차별화된 컨셉 설정

<이 상>

Strategy for Localization

CHAPTER 8

자유토론회

-
- **진행자** 박진도 (지역재단이사장)
 - **토론자** 제이톰트 (JayTompt), 노노야마 리에코 (Nonoyama Rieko),
김창환, 임경수, 황영모, 손현주

[illegible]

[illegible]